

6월 제주 AIB 연차총회에 시진핑 초청 '사드 갈등' 해법 나올까



정부 "총회 격 높인다" 초청 추진
악화된 한·중 관계 돌파구 관심
조기대선 뎀 정상회담도 가능



이정에서 열렸고, 2차 연차총회는 6월 16일부터 서울 간 제주에서 열린다.

이번 연차총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연차총회를 이용해 한·중 정상 회담 등이 이뤄질 경우 대화의 격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경우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본격적인 화해 무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AIB 내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유치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중국과 체결한 56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가 오는 10월에 끝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각적

루트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미 안보 수뇌부가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해 연차총회가 열리기 전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중국 관영언론이 '단교'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확정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25년 만의 최대 위기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제주 AIB 총회 홈페이지(aib2017.org)를 개설하고 본격적 홍보에 들어갔다. 또 같은 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다니 알렉산더(Danny Alexander) AIB 부총재가 만나 제2차 연차총회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 structure)를 테마로 열리며 슬로건은 '아시아를 잇는다, 미래를 잇는다'. 2017년 AIB 연차총회로 정해졌다. **곽도훈 기자 sogood@**

정부가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차총회는 AIB 창립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행사"라며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총회의 격을 높이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AIB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출범했다. 1차 연차총회는 작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고, 2차 연차총회는 6월 16일부터 서울 간 제주에서 열린다.

롯데 불매운동 확산되고 홈페이지 해킹도

사드보복 현실화...中 수출기업 전전긍긍

지난달 28일 롯데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 제공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속속 전개되고 있다. 2월 28일 롯데와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확정하면서, 양국의 소비자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반(反)롯데, 반한 정서가 거세게 불거져 롯데를 비롯해 국내 중국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우리가 같이 손잡고 롯데를 멀리하자'는 사설을 게재했다.

등 전방위적 사드 보복을 피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에 삼성과 현대에 가장 큰 시장이며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복잡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중 갈등이 가속하고 있어 이들 기업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당국은 오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반덤핑 조치를 강화한 데다 국내 중국 수출기업 제품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차량보조금 중단 조치, 화장품 수입 검역 강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피해를 국내 기업들이 감수해야 할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중국의 양대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 징둥닷컴(JD.com)이나 중국 온라인 3대 배달업체로 꼽히는 메이탄과 바이두와 이마이가 롯데 관련 업체의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온라인에서 롯데 제품이 퇴출당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미전실 해체' 삼성 주목받는 CEO 3인



전자·물산·생명 중심 재편...부문별 컨트롤타워 역할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해체'를 통한 계열사별 자율경영을 선언하면서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로의 '힘의 중심축' 이동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권오현(사진 왼쪽)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훈(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김정수(오른쪽) 삼성생명 사장 등 3개 계열사 CEO 중심의 경영기반 재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지배구조를 감안해 이들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미니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실 산하 7개 팀이 맡고 있던 주요 업무는 이들 핵심 계열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따라서 미전실 해체 이후 인사·투자 등과 관련된 현안이 이들 계열사를 통해 일정 부분 소화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삼성 안팎에선 전자·바이오·금융 등 삼성의 3대 축과 관련된 계열사 CEO가 각 분야별 계열사 사장단과 이사회를 조율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율 경영체제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실상의 지주사로서 지배구조 관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제조 계열의 사업 관리, 삼성생명은 나머지 금융 계열의 경영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오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현재 삼성 계열사 전체에 이 재계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부회장 직함을 갖고 있다. 최지훈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삼성의 2인자로 올라섰다.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돼 있는 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S 등 관련 계열사들은 총괄하며 사장단과 이사회를 주재할 것으로 보

인다. 삼성의 지주사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인 최지훈 건설부문 사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에버랜드를 품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계열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주사로서의 입지도 확고히 했다.

금융 계열을 관리하는 중간지주사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시선을 끈다. 김 사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하며 중추적인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지낸 경력으로 카드·증권 등 금융 부회장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수직적 계열화와 빠른 사업구조 재편이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아왔다"며 "핵심 계열사 수장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신해 기존 강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철우·서지희 기자 acw@**

다우지수 2만 돌파 24일 만에...2만1000 훌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기업 및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1일 뉴욕증시가 급등하자 한 트레이더가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1000선을 돌파하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뉴욕/AFP연합뉴스**

순해진 트럼프...시장이 환호했다

의회 합동연설서 독설 자제
"역사적 세계 개혁" 재천명
S&P500·나스닥도 사상 최고

뉴욕증시 다우지수 추이



"트럼프가 달라졌다." 그동안 보여온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의회 합동 연설의 연설이 시장을 환호하며 트럼프 열기가 다시 이어졌다. **▶관련기사 12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시장이 고대했던 규제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이전의 거칠고 공격적인 연설을 자제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투로 자신의 논리를 펴나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

히 1% 이상 급등했으며,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1000선을 돌파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 등 다른 주요 지수도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도 0.4% 상승했다.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에는 매도세가 유입됐다.

트럼프는 전날 연설에서 이민제도 수정과 일자리 창출, 국경 치안 강화와 멕시코 장벽 건설 등을 언급했으며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확인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규제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세계 개혁'과 '1조 달러(약 1130조 원) 인프라 투자'를 재천명하는 등 연설 내용은 기존 발언의 재탕이었고 세부사항 공개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연설에서 여러 차례 민주·공화 양당의 양보와 협력을 호소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고 시장은 이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정치 역사상 가장 전통적인 연설을 나타내는 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도 0.4% 상승했다. 리스크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 국채에는 매도세가 유입됐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

미전실 해체후 입장 선화...오늘 긴급 이사회

한화도 추가 지급 내일 논의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결국 백기투항했다. 삼성생명은 2일 오전 10시 반 긴급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김정수 삼성생명 사장은 전날 금융원을 방문해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입장을 선화한 배경에는 그룹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자살

보험금 추가 지급 입장을 밝힌 시점은 삼성그룹이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다. 미전실 해체로 삼성생명의 임지가 커진 만큼 지난달 23일 결정한 금융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CEO 문책 경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가 부담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리스크를 떨쳐내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그룹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권지급'

입장을 밝힌 교보생명의 경우 CEO는 주의적 경고, 기관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

제재심에서 내린 중징계 의결안은 진웅섭 금융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이 전액지급을 확정할 경우 CEO 징계 수위는 진 원장이 금융원장 권한으로 경감되고, 기관에 대한 중징계(일부 영업정지)는 금융위에서 낮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생명도 내일(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기이사회 안건에는 자살보험금 사안이 없었지만, 김갑원 중징계, 삼성·교보생명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안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여성친화 기업을 찾아

가족사랑 실천 교보생명

▶ 16

국내 대표 생명보험회사인 교보생명은 가족사랑 실천의 경영방침 아래 탄력적 점심시간, 자율복장, 반일 휴가 등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인 D&I를 만들어 여성 직원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가장 높은 복지제도다.

글로벌 이슈 ▶ 18-19
탄력근무제 시대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최근 2개월간 주요국 통화 상승률 (2월 27일 기준)

국가 통화	달러 대비 환율	올해 증감률
한국 원	1,133.7	-6.1%
카자흐스탄 텡게	313.13	-5.2%
러시아 루블	57.838	-5.1%
남아프리카 랜드	12,9675	-5.1%
대만 대만달러	30.72	-4.9%



심상찮은 원·달러 환율, 올해 들어 하락폭 세계 최고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6% 넘게 내렸다. 세계 주요 통화 중 환율 절하 폭이 가장 컸다.

2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133.7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6.1% 하락했다.

환율 하락 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5.1% 내린 것을 비롯해 대만달러 4.9%, 브라질 레알 4.4%, 일본 엔화 3.7%, 태국 바트 2.7%, 인도 루피 1.7%, 중국 위안화 1.1% 각각 하락했다.

반면에 유로는 0.6% 올랐고, 호주달러가 6.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노벨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강(強)달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달러는 최근 두 달간 꾸준히 약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오는 14-15일 열리는 미국 FOMC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환율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축포’ 쓴 수출... 대외 불확실성 ‘변수’

2월 20%↑ 5년만에 최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등 주력 품목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냈다.

수출이 2년 연속 부진을 털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이 작년 2월보다 20.2% 증가한 432억 달러(약 48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20.2%의 수출 증가율은 2012년 2월(20.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월(11.2%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2011년 9월 이후 5년 5개월 만이다.

수출 실적은 반도체가 주도했다. 지난해 2월보다 무려 52.2% 증가한 64억 달러를 수출하며, 1월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D램 가격이 꾸준히 오르며 이익이 컸다. 반도체 D램(4Gb 기준) 가격은 지난해 2월 1.84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2월에는 3.09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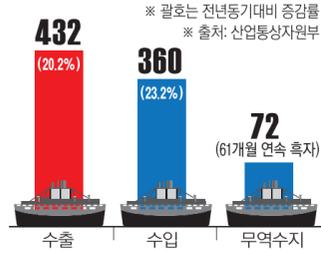
반도체·석유화학 주력품목 호조 수출액 48조8000억... '최고 실적' 2년 연속 부진 털고 완연한 회복세 美 보호무역·中사드갈등 북병으로

유가 상승에 힘입어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도 덩달아 늘어났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38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42.6%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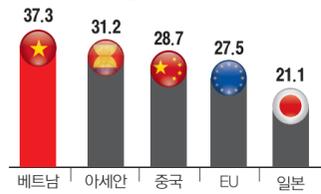
이밖에 철강, 평판 디스플레이, 컴퓨터, 일반기계, 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선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유망 품목 중에서는 화장품이 중국 수출 급증으로 83.1%의 증가율을 기록, 역대 2위 월간 수출 실적(4억1000만 달러)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 인도, 유럽연합(EU) 등의 수출 증가가 이어졌고, 미국과 중남미 지역 수출도 증가세로

2월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주요 품목 수출 증감률 (단위: %)

석유제품	72.3	평판디스플레이	20.1
반도체	54.2	컴퓨터	14.0
철강	42.9	일반기계	10.1
석유화학	42.6	자동차	9.6

전환했다. 특히 베트남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 호조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360억 달러로 23.3%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72억 달러 흑자로 6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월 수출이 급증한 데는 작년 2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2월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라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불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등이 여전히 악재로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수출 실적이 위안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2월 수출액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열리 기자 ellee@

연초 유가증권시장 주가상·하위 3종목 (단위: 원) * 출처: 한국거래소

종목	1월 2일 종가	2월 28일 종가	등락률
코리아01호	740	2,100	183.78%
STX중공업	1,170	2,785	136.32%
호텔신라우	30,950	57,600	86.1%
성문전자우	31,500	7,760	-75.36%
한진해운	367	100	-72.75%
성문전자	10,200	3,220	-68.43%

올해 주가상승 1위 '선박펀드'... 하락 1위 '성문전자우'

올 초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선박펀드다 나타났다. 주가가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은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된 성문전자우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유가증권시장 주가 상승률 1위는 선박펀드인 코리아01호로 183.7% 올랐다. 코리아01호 외에도 △코리아04호(85.57%) △코리아03호(77.52%) △코리아02호(50.18%) 등이 평균 수익률 50%를 넘어가며 상위권에 포진했다.

선박투자회사 다음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STX중공업(136.32%)이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STX중공업은 매각 가능성에 단기 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몰리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부진 대표의 역할 상승 기대감에 호텔신라우(86.10%)가 급등했고, SK증권 매각설에 영향을 받은 SK증권우(80.6%) 역시 수익률이 높았다.

최두선 기자 sun@

<장형진 회장-최창영 명예회장>

판살림 차리는 '張-崔'... 영풍그룹, 계열분리 조짐?

영풍그룹 동업자 집안이 각각 가족회사를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계열사는 장형진 회장 일가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씨케이와 최창영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엑스메텍이다. 특히 이들 회사는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또는 동업자 간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2일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차남인 최정일 씨가 영풍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엑스메텍의 지분 51%를 확보하면서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 최정일 씨는 지난해 5월 누나인 최은아 씨로부터 엑스메텍 지분 11%를 매입하면서 회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주식을 취득해 현재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됐다. 최정일 씨는 회사의 절대지분율(50%+1주) 이상을 확보하면서 청산을 제외한 모든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창영 회장의 장남인 최제임스(한국명 최내현) 알라뎀 대표도 지난 1월 자신이 최대주주인 캠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캠프의 주력 사업은 황산니켈의 제조판매다. 최 대표는 회사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초기 설립 자본금이 56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최 대표는 알라뎀을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 연매출이 11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창영 회장은 사비 145억 원을 털어 알라뎀에 빌려주는 등 재무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장형진 회장의 일가도 독립적으로 가족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된 씨케이이다. 씨케이의 지분은 장형진 회장과 장 회장 아들 2명이 각각 24.7%씩 나눠 갖고 있으며 나머지 장 회장의 부인과 딸이 보유하고 있다.

씨케이는 설립 이후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35억 원에서 176억 원까지 늘

씨케이

주주	지분율
장형진(영풍 회장)	24.70%
장세준	24.70%
장세환	24.70%
장해선	17.20%
김해경	8.60%

린 상태지만 5년이 지나도록 매출은 0원으로 이렇다 할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룹 오너가 재산과 지배구조와 연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장형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토지를 80여억 원을 주고 매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인 시그네틱스와 인터플렉스, 코리아씨테크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과 최 회장의 일가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들은 그룹 주력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 선을 그치고 있다. 엑스메텍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 형태도 경쟁

동업자 두 가문, 각각 가족회사 꾸려 향후 지배구조 변화 주요역할할 듯

엑스메텍

주주	지분율
최정일 (최창영 회장 차남)	50.90%
최제임스성	9.00%

입찰을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 씨케이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총수 일가의 비상장사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사회적 눈길 등의 부담감 등으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일각에서는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동업자 간 계열 분리 작업이 이뤄질 경우 이들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분 확대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오너가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5,000MB/s의 강력한 성능으로 데이터를 CPU에 더욱 가까이! 인텔 SSD P3608 시리즈

SSD시대!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를 위한 인텔 SSD S3520 시리즈

스토리지로서의 뛰어난 안정성 그리고 성능. 인텔 CPU에 최적화된 호환성.

게이머를 위한 선택 인텔 SSD 750 시리즈

인텔 SSD 750 시리즈는 기존 SSD와 다르게 읽기 2,200MB/s, 쓰기 900MB/s의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보급형 시장의 선두주자 인텔 SSD 540s 시리즈

인텔 SSD 540s 시리즈의 빠른 성능으로 생산성의 속도를 높이십시오. 인텔의 최신 하이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ETRON (주) 이트론 본사 :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66-11 석호빌딩 5층
Tel : 02-528-9377 http://www.e-trons.co.kr / http://www.realssd.co.kr

선장도 항해사도 없는 삼성, '3두 체제' 각자도생 닷 올린다

불확실성 앞에 선 삼성... '쇄신 회오리' 재계로 번지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대형 M&A 일단 멈춤... 계열사간 중복투자 우려도 '전자-물산-생명' 중심 위기대응... 대관조직 공백, 정치권도 민관협력 혼란

삼성이 대체조직 없이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팀장 전원 사퇴한 초강수를 두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표준을 잃은 타 그룹도 혼란에 빠지는' 마친가이다.

삼성그룹 창립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은 최순실 게이트와 얽여 주요 의사결정이 오간 장구로 지목됐다. 삼성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만든 비서실과 이병철 회장의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을 거쳐 오 늘날 미전실은 총수 전위조직이라는 여론의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이번 미래전략실 해체를 비롯한 경영쇄신안은 정경유착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탈법 시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도다. 반삼성 성 정서 해소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삼성이 불확실성에 놓였다는 데 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선부터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미전실이 주도하던

대형 인수·합병(M&A)이나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장,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사업 투자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의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계열사 독립 경영 시 최고경영자(CEO)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면 서 장기 투자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그간 그룹의 중요 사안을 조율할 때 미전실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를 맞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계열사 간 중복투자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당장 삼성그룹 차원의 상반기 공채 실시 여부도 안갯속이다. 삼성 사장단 인사 등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회장이 '육중 경영'으로 지휘 중인 삼성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 지난달 28일 삼성SDI는 이사회를 열어 신인 사장으로 전영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을 내정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분간은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이 중심이 돼 각 계열사들을 컨트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 작업을 통해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은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재계 1위인 삼성의 그룹 채용, 인사, 대관, 경영진단, 대규모 M&A 등 경영 전반을 조정했던 미래전략실은 상당수 그룹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됐던 게 사실이다. 삼성 미래 전략실처럼 별도 조직을 통해 그룹 경영을 논의하는 그룹으로는 SK, 롯데, 포스코, 한화 등이 있다.

오히려 주목받는 곳은 현대자동차와 LG 등 공식적으로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두지 않은 그룹들이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별도의 조직없이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가 그룹 현안을 지휘하고 있고, LG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뒤 (주)LG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의 대관조직 해체 역시 재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고심하는 포인트다. 정부에서 그동안 산업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하면서 민관 합동 투자 등 기업의 협조가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대상은 주로 삼성이었다.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에는 대관 조직이 사라진 삼성에서 관련 이슈를 협의할 담당자 찾기도 쉽지 않게 됐다. 재계한 관계자는 "삼성이 대관 조직을 해체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기존 대관 업무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中 '사드보복' 산업 전반 확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들어설 경북 성주군 롯데 스키야힐 골프장 입구에서 1일 군과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쇼핑물 쥐메이 "롯데상품 안팔겠다"... 네티즌 '좋아요' 12만건 '소비자 불매운동'에 손도 못대는 정부

무역보복 전기전자·화학 등으로 번져 "한·중 무역, 1992년 수교 이래 최악"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본격화하자 중국이 관영 언론 매체와 소비자들을 앞세워 롯데를 비롯해 한국 기업 전반으로 전방위 보복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관련업계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마땅한 해법이 없는 상태인데다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기업들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2일 정부는 일단 우리 업계의 피해 현황과 가능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중국의 통상 압력은 양국 무역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바, 중국 내 한국 제품 전반의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을 예의 주시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사드 사태로 인한 한·중 통상 관계의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뿐 마땅한 해결 방법을 몇 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롯데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현실화됐다. 롯데그룹 중국 홈페이지는 해킹 공격으로 접속이 중단돼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국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메인화면에는 '홈페이지 리뷰얼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글만 남았다. 중국 최대 뷰티 쇼핑물 쥐메이는 청사 7주년을 기념하는 1일 판촉행사에서 롯데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천어우(陳歐34) 쥐메이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이번에 롯데 상품을 모두 내렸다. 앞으로도 팔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중국 네티즌이 12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환호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사드 사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와 전기 트럭이 기존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2015년 말 각각 2000억 원가량을 투자해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한 삼성SDI와 LG화학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밖에도 중국은 한국산 폴리옥시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을 했다.

무엇보다 한국 상품의 불매운동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은 직접 한국 기업을 거론하며 일제히 한국 상품 불매 촉구에도 나서고 있다.

뷰티 업계는 직격탄이 예고돼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화장품 사업은 유커, 한류와 직접 연결된 사업이다. 한류 스타가 한국 드라마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이 산업에도 심상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향 유커들은 일본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위생허가가 있는 업체도 수입통관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용 비자마저도 어렵게 발급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위생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위생허가의 승인 기간을 지연, 허가를 못 받아 수출이 아예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간 협회들은 과거 2012년 8월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 중국 진출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반토막 난 것을 들면서 한·중 갈등도 최정점에 달할 것을 우려, 직접 대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희진·김하나·전효정 기자 heejin@

NEW IOPE LIVE-LIFT

호트러짐 없이 언제나 팽팽하게 |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 |

주름이나 잡티가 생긴 것도 아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을 땐, 리본존을 체크해보세요. 얼굴 양 볼의 큰 면적을 뜻하는 리본존의 탄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부는 빠르게 나이 들기 시작합니다. 슈퍼플랜트 용성량의 생명력이 담긴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으로 리본존을 케어해주세요. 2주 후, 한 살 더 어린 피부탄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 그 이상의 변화 -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

IOPE

IOPE (Integrated effect Of Plant Extracts) 아이오페는 식물 과학을 통해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한 정확한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고객상담실 090-029-9454 | www.iope.com | www.facebook.com/iope.kr | instagram.com/iope_official
 *아이오페 라이브 리프트 세럼 인체적용시험 결과(개인과 있음) 조사 기간: 2016.10.31~11.29 (세럼 사용 전, 세럼 사용 2주 후, 세럼 사용 4주 후 조사) 인종: 피부탄력(탄력 값이 1년 전에 비해 감소된 여성 2명 조사 기간: 피안케이(피부안정연구센터) 1년 전 피부 탄력(20)값과 사용 2주 후 탄력(20)값 비교 기준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無'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생협력촉진·징벌적손해배상 특검법 정속속 목은 법안만 처리 3월도 대선 정국에 '빈손' 우려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자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품 생산자의 고의사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6건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 160건 이상의 비쟁점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제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기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

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지금까지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혁입법은 청와대 파견검사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감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뿐이다. 2월 한 달간 처리한 법안 수는 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204건의 5분의 1 수준이다.

18세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방송법 등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노동4법 처리는 야권이 파견법 제외를 주장하며 논의가 막혔다.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

점법안 처리에 그칠 것이라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행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 4당이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정상적 절차대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정 의장은 추미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 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정 기자 puri20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앱으로도 만나요"

포털·공식팬카페 글·동영상 연동 등 매체별 관련 뉴스 모아 접근성 높여 보수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유일 게시물 다운로드 '10회' 존재감 약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기존 SNS에 이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진보진영 대선 주자들이 두각을 보이는 반면, 보수진영 주자들은 존재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모두 각자의 앱을 제작,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 1월 초 '문재인 앱' 업데이트 버전 출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의 트위터, 페이스북에 오른 글들은 물론 유튜브에 오른 홍보 영상,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선거운동 사진, 포털사이트 '다음'과 연동된 실시간 뉴스, 그리고 공식팬카페와 사설홍보팀 동영상 상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다. 한 이용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팔로어가 많아 찾

아보기 힘들었는데, 팟캐스트나 동영상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더니 정말 좋다"는 리뷰글을 남겼다.

안 지사는 '우리희정'이라는 제목의 앱을 내놨다. "안 지사가 살아온 길과 함께 그가 가진 여러 장점 중 능력, 신의, 통합, 합리, 충효라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 인간 안희정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앱 다운로드 수가 5000회 이상으로, 문 전 대표 앱(1000회 이상)의 인기를 능가한다.

이 시장은 역시 '이재명 앱'에서 그의 SNS 글과 매체별 관련 뉴스 등을 모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선 선거인단 참여와 '홍수추후원회' 후원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손가락력 명관' 팬카페도 별도 앱을 출시,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안철수·전정배 전 대표, 손학규 전 의원은 공식 앱이 없다. 범여권 쪽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만이 대선주자로서의 앱을 갖춰, 그의 일정과 언론 보도, 토론회 영상 등을 올려두었지만 지난달 22일 출시돼 아직 게시물도 적고, 다운로드 수도 '10회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김미영 기자 bomnal@

기रो에 선 한국경제! 싱크탱크의 분석과 제언

3.2(木) 07:30 ~ 09:00 국회 본관 귀빈식당 2~3호실 | 경제재정연구포럼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장병완(왼쪽 다섯번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추경호 의원,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김광림 의원, 장 의원,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자유한국당 원우철 의원. 이날 간담회는 '기रो에 선 한국경제! 싱크탱크의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유 산업연구원장과 강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금융위기 폭우였다면, 지금은 가랑비에 젖는 격"

여야 '기रो에 선 한국경제...' 간담회 4차 산업혁명·국회의 역할 등 논의

여야 의원들은 2일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는 '기रो에 선 한국경제! 싱크탱크의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당 김광림 전 정책위의장과 국민의당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의기 투합해 마련했다.

김 전 의장은 "과거 98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폭우였지만 지금은 추추추 오느라 가랑비"라며 "우리 경제가 3년 연속 2%대 초반 성장에 머물러 있고, 소비는 작년의 마이너스 1.5%였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님들이 '실사구시'로 주는 말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모든 경제 지표들이 우리 경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

황이고, 더 어려운 건 리더십의 공백까지 함께하고 있는 미증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 경제 상황에) 국민들마저 둔감해져 있는 상황이 문제"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통찰력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국 경제 위기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지금의 위기

는 경제·사회적 복합위기관 것이 특징이다"라며 "전반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효율성이 높아져야 자본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이 대체 가능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해 위기이다"라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20년 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이 현실화된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횡령·배임 등 재벌 부정재산 국가 환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년 배정받은 삼성 SDS 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 원 규모 신규주권 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 받았다.

삼성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전자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삼성의 경우 과거 SDS 신규주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수조 원대의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 원이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자배권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불법 이익환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사장님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는데 비용이 걱정되신다구요?
마땅한 전문가를 찾기가 힘드신다구요?
지금 바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찾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법률 회계 세무 노무 지식재산

지원 분야!

- 법률**
채권회수, 임대차, 부동산 및 상업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 기업설립, 정관 등 회사내규, 계약서 등
- 노무**
채용, 애고, 징계, 임금, 전보, 산재, 노사 분쟁, 성과관리 등 인사 관련 컨설팅 등
- 세무**
가장대명(외계장부 작성), 재무상태 분석, 세무조정계산서(세금신고서) 작성, 세금 관련 행정심판, 개별공시지가 등
- 회계**
회계감사, 재무제표, 회계기준의 적용, 금융상품 가치평가, 주요 회계 이슈 검토,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등
- 지식재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

상담 받으시는 방법!

- 방문·유선**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666-9976)를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www.kbiz.or.kr) 참조
- 대 상** 대한민국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 상담 일** 매월 첫째, 셋째 주 (월)법률 (화)세무 (수)지식재산 (목)노무 (금)회계
- 상담시간** 14:00~17:00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 접속하시면 "사이버중앙상담실"에서 간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특전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전문가가 소장, 의견서 등 서식을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 단, 상담결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연 1회에 한함.

무료 상담 1666-9976 / www.kbiz.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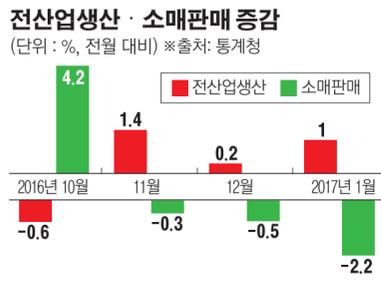
얼어붙은 지갑... 소비 석 달째 '뒷걸음' 날개 돋친 상품권... '돈세탁' 창구?

1월 산업활동 전산업생산 1% 늘어
반도체·전자부품 수출 회복 영향

소매판매 2.2%↓ 3개월 연속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기 회복세 발목

1월 소매판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취업자 감소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인 분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늘어 전월에 비해 1.0% 증가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회복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2.7%)에서 감소했지만 반도체



(8.8%)와 전자부품(6.7%) 증가에 힘입어 3.3% 늘었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보다 2.6% 늘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7%포인트 올라간 74.3%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3%)와 예술·스포츠·여가(-5.4%)가 줄었지만, 운수(3.2%)와 금융보험(1.5%) 등이 늘어 전월에 비해 0.5% 증가했다.

반면 1월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2.2%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0.3%)과 12월(-0.5%)에 이는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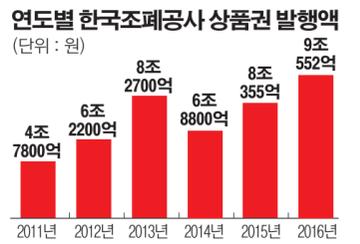
연속 감소세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6%)는 증가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4.5%)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1.9%) 판매는 줄었다. 소매판매가 3개월 이상 연속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8-12월 이후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2.6% 증가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3.2%) 투자는 감소했지만,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5.2%) 투자가 늘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의 경우 건축(0.8%)은 늘었지만 토목(-4.5%) 공사 실적이 줄면서 0.7%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역지수가 줄었지만, 광공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가 증가해 전월 대비 0.3포인트 올라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대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했지만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이 증가해 0.1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세가 생산과 투자 확대로 파급되지만, 소비는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수출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고용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에 소비심리 위축, 취업자 증가폭 축소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작년 조폐공사 9조552억 발행 '최대' 50만 원 이상 고액 상품권 16% 늘어
청탁금지법 이후 법인카드 구매 급증
규제 피해 뇌물·비자금 등 악용 우려



지난해 백화점·대형마트·정유사 등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상품권과 관련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돈세탁 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가 9조552억 원으로 전년(8조355억 원)보다 1조197억 원(12.7%) 증가했다.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조폐공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상품권의 90% 이상을 발행하는 곳이다.

연도별 상품권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4조7800억 원에서 2013년 8조2700억 원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6조8800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들어 다시 8조 원대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9조 원을 넘겼다.

10만 원권 이상 고액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5조2083억 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더욱이 액면가가 50만 원 이상인 고액의 유통사 상품권 발행액은 1조357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상품권은 유통업체 신규 매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소비자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암적인 존재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 해에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간(2016년 4분기) 법인카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법인카드를 접대비 등 결재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상품권 이용을 늘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사실상 9조 원이 넘는 상품권이 누가 언제 어디서 쓰는지도 파악할 수 없어 리베이트나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시민연합(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상품권법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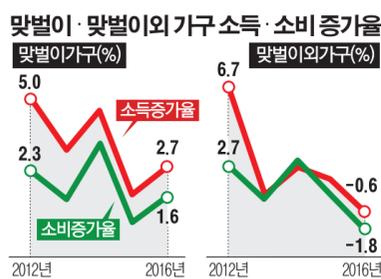
美 신임 재무장관과 첫 전화통화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 장관과 '한-미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유선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쪼그라든 외벌이... 소득·소비 첫 동반 감소

지난해 월소득 371만6000원 0.6% 줄어
근로소득 감소 영향... 월소비도 1.8% 폭
맞벌이 소득은 2.7%↑ 4년 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시직 감소 등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점이 맞벌이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어 들었다. 맞벌이외 가구는 동일 가구 내에서 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한 경우를 제외한 가구로 외벌이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벌이외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맞벌이외 가구의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2.5% 감소했다.

맞벌이외 가구 소비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맞벌이외 가구의 월평균 소비는 228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반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소비는 전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해 경기 불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맞벌이외 가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5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났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5.7% 늘어나며 2012년(6.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맞벌이 가구의 소비지출 역시 1.6%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 1인 가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1인 가구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이 많아 맞벌이외 가구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맞벌이 가구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박도훈 기자 sogood@

SNS 속 소비자 체감경기 클, 경제심리지표에 반영한다

한은 '텍스트 데이터 이용 경제심리지표' 공모

한국은행이 이른바 '텍스트 데이터(Text data)'를 이용한 경제심리지표 작성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소비자들의 경제에 관한 글들이 경제심리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심리지표 작성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란 최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중 숫자보다 표시되는 자료가 아닌 문자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연구 논문을 만드는 단계에 불과해 이를 실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글들의 경우 감정이 섞여 있어 다분히 주관적인 데이터 형식과 형태도 갖가지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소비자나 기업들을 상대로 소비자심리나 기업체감경기를 조사하는 만큼 텍스트 데이터도 소비자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심리지표 외에도 공유경제 서비스나 디지털 경제를 국내총생산(GDP)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 통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ERNEST BOREL 1856

Duke Collection
GG7351-28191BR

에르네스트보렐 공식수입원 (주)티보스 1661-5705 | 공식온라인샵 <http://www.tbossmall.com>
[서울] 두타면세점(동대문점) 1833-8800 | 이타일월드(신촌점) 02-313-4108
[경기] 사론위치(안양점) 031-463-9788 |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충청] 신세계백화점(충청점) 041-640-5081 | [제주]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제주점) 064-780-7669
www.ernestborel.ch

‘기업 출연금 성격규정’ 檢 특수본 첫속제

‘최순실 게이트’ 관련수사 바통
檢,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지만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 상충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처리 고민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처리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 의혹 등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에 관련 수사를 맡기기로 가닥

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검이 출범하면서 중단된 특수본 활동을 재가동, 특검의 수사 사건을 이어받게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수사를 일단락해 특검에 넘겼지만 해체된 게 아니라서 다시 수사를 받아 이어가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 검찰 측 판단이다. 특히 특검이 법원에 최순실(61) 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병합신청을 냈에 따라 삼성의 뇌물공여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병합은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로 기소했지만,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의 논리대로면 미르재단과 K스 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대기업은 뇌물 공여자가 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 5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검 수사 착수 이전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 대기업의 출연금을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경영권 승계·사면·면세점 인허가 등의 특혜를 기대하고 출연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똑같은 행위를 놓고 검찰과 특검의 시각 차이가 생긴 셈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충적 경합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

고 말했다. 상충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를 놓고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충적 경합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죄인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여기에 흡수된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행위를 권력남용으로 볼지, 뇌물수수를 포함한 것으로 볼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형 상한이 징역 5년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뇌물혐의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 독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이 뇌물 혐의 적용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최영길 기자 jyg97@

이번엔 쌀 판 돈 15억으로 원정도박 농협, 도대체 왜 이러나

사회공헌 사업비 유용 이어
쌀 판매대금 횡령한 직원까지
도덕적 해이 다시 도마위에

지난달 사회공헌 사업비를 빼돌린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불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농협 소유의 쌀을 팔아 원정도박에 나선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나서야 할 농협이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농협 소유 쌀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필리핀 원정 도박에 탕진한 A씨를 체포, 지난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

년 중순부터 쌀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필리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쌀 판매 대금 15억 3000여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쌀 판매 대금을 모두 해외 원정도박과 유희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소속된 농협은 지난해 말 미국채리장에서 14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쌀 판매 대금과 함께 A씨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가족들의 권유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사춘 농촌돌기운동 사회공헌 사업비에서 억대를 빼돌린 은행 직원과 이를 도운 농협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 농협 직원은 실제 경쟁에 내몰려 주거래 고객에게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기업·개인 ‘패자부활’ 도와주는 ‘회생·파산’ 전문법원 업무 시작

중앙지법 파산부서 조직 독립
서울회생법원 판사 35명 배치
기업 신규자금 확보 컨설팅...
개인 채무조정 ‘뉴스타트’ 운영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출범했다.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미리 제출할 수 있게 한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독립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중심으로 총 35명의 판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한다. 회생법원은 기업 회생절차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들이 신규자금을 지원받을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달 파산한 한진해운의 경우 법원이 산업

은행에 수차례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기업 대표자 개인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 회생 절차를 적용해 절차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회생법원은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전담 재판부를 확대·설치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맡던 일반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했다. 기업회생 절차의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적용해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시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법원 1층에 무료상담 공간인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도 개설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이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다시 완전무장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꽃샘추위가 찾아온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낮 기온이 7도에 그치며 찬바람까지 불어 외출 시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안전사고 많은 대우건설·대림산업 5억 과태료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건설현장까지 포함해 각각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제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발생한 145건은 사법처리됐다. 본사 2개사 73건과 32개 현장 129건에는 5억17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추락방지시설 등이 불량한 4개 현장은 작

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본사와 현장에서 2억4590만 원, 대림산업은 본사와 현장에서 2억78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이다. 특히 추락위험정소 안전간판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관리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적발됐다. 박은평 기자 pepe@

‘또 으르렁’ 서울시·강남구 생활쓰레기 고발전

“소각시설 감독 신규위촉 지연”
구, 시 공무원 직무유기 고발
시 “유보, 사전협의 사안” 반박

세텍 부지 제2시민청 건립, 재건축 35층 높이 제한, GBC 건축을 둘러싼 공공기여금 등 건건마다 부딪히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고발을 펼치며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시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고 있다며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쓰레기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서며 적극 반박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그러나 인근 지역주민 지원 사업 협의 목적으로 꾸러진 주민지원협의체 측이 지난해 7월 강남구 쓰레기반입을 막아 강남구는 인건 수도권매립지가

지 실어 날랐다. 강남구 청소차량에 의류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이 섞여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강남구가 구정장 명의로 주민협의체 위원후보 선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주민협의체 위원은 자치 규약에 따라 주민 대표들이 간선으로 뽑은 뒤, 구의회의결을 거쳐 서울시가 위촉한다. 그러나 강남구는 지난해 말 이를 지키지 않고 추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 강남구의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기존 주민협의체의 가치분신청을 고려해 새 위원 위촉을 유보했다. 이후 강남구는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 주민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했다며 서울시 공무원을 고발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의회 추천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해 위촉을 유보한 것으로, 구의회 등에 중재노력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싱그런 봄바람에 매력자산 돌아나고

PART1. 사람의 자리가 아니 옷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사회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변화의 물결 선두에는 청바지와 원피스가 있다 정승호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PART3. 내로라하는 쟁쟁한 여성 패셔니스타 4인 김민정 패션에디터

PART4. 엄마에게 딸의 웃음을 허하라!

PART5. 2030 직장인, 아이의 매력을 말하다

PART6. 아재, 한 곳 차이로 오빠 되다

PART7. 패셔니스타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성공의 첫걸음, 패션

3월의 신채

Life is a Flower! LIAF·아산세계꽃식물원

봄이 가지개를 켜는 3월이다. 우리에게 마음은 춘삼월(春三月)이어서 꽃봉오리들은 아직 몸을 움그리고 있다. 봄꽃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아산세계꽃식물원을 찾으면 사시사설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COVERSTORY 싱그런 봄바람에 매력자산 돌아나고

PART1. 사람의 자리가 아니 옷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사회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변화의 물결 선두에는 청바지와 원피스가 있다 정승호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PART3. 내로라하는 쟁쟁한 여성 패셔니스타 4인 김민정 패션에디터

PART4. 엄마에게 딸의 웃음을 허하라!

PART5. 2030 직장인, 아이의 매력을 말하다

PART6. 아재, 한 곳 차이로 오빠 되다

PART7. 패셔니스타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성공의 첫걸음, 패션

3월의 신채

Life is a Flower! LIAF·아산세계꽃식물원

봄이 가지개를 켜는 3월이다. 우리에게 마음은 춘삼월(春三月)이어서 꽃봉오리들은 아직 몸을 움그리고 있다. 봄꽃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아산세계꽃식물원을 찾으면 사시사설 언제나 향기로운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

일곱 번째 자선 콘서트 여는 윤석화, 윤석화다운 삶을 말하다 불행은 내 정정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시작된다

“항상 양보해야 말이 없어요” 가수협창 김홍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년 만에 꿈을 이룬 브리프랑스 한홍섭 회장 아름다운 소행성을 꿈꾸는 일흔의 어린 왕자

추억이 방울방울, 오늘은 경양식 먹는 날!

한때 ‘칼질러리 가지’고 하면 그날은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 먹는 날’이었다. 요즘은 도시락 반찬이나 분식 정도로 생각하는 음식이 돼버렸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좋은 날 귀하게 먹던 고급 외식 메뉴였다. 멋스럽게 차려지고 나가 돈가스를 썰며 기분을 내던 그 시절의 추억을 재현한 맛집 ‘모단결음점식’을 찾았다.

이복규·심홍·이민호 50세 지금이 딱 좋아! 60세 내 모습 기다려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승연은 결혼한 지 9년째인데 매일매일 연애하는 것같이 짜릿하고 즐겁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억만금을 줘도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 이승연은 행복하다. 나이 50에 해탈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그녀와의 탈탈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최은주·최원국·신용재·이경숙·한정숙·조왕래 동년기자 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그날 왜 늦은 줄 아세요?



KB 금융그룹

터치만으로
내 차를 갖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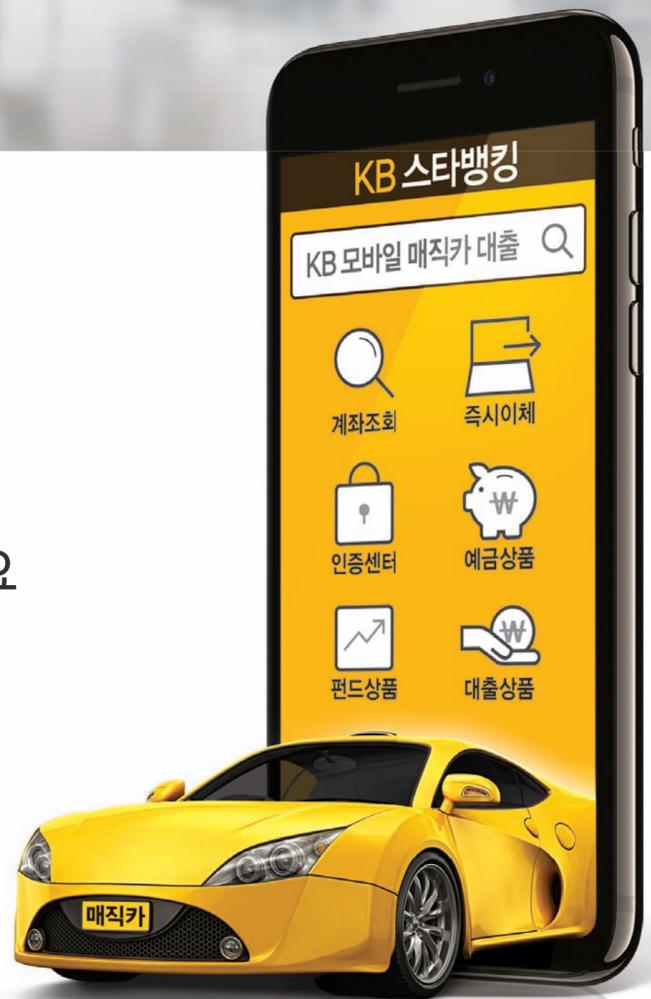
KB 모바일 매직카 대출



밤잠 설치가며 고르고 고른 내 차!
그런 당신을 위해
KB 모바일 매직카 대출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절차 없이 **빠르게-**
합리적인 은행 금리로 **똑똑하게-**
KB 스타뱅킹 어플로 자동차 대출 **간편하게** 누리세요

-  **1. 모바일 신청**
영업점 방문 없이 **KB 스타뱅킹** 어플로 신청
-  **2. 서류송부**
자동차 구입 서류만 송부하면 나머지 서류는 KB가 알아서 싹
-  **3. 대출완료**
최저 연 3.38% 은행권 금리로



※ 대출금리 * 신차대출 : 연 3.38%~연 4.38% * 중고차대출 : 연 3.99%~연 4.99% (2017. 2. 20 현재, 6개월변동, 신용등급1등급, 대출기간 5년기준)
 ※ 최저금리는 대출최대 우대금리 1.0%를 반영한 금리입니다
 ※ 대출 실행 후 신차구입자금은 15일 이내, 중고차구입자금은 3영업일 이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안 된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직원 또는 KB매직카전담센터(1644-7444)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18호 (2017.02.24)

삼성 금융부문 핵심조직으로 떠오른 '삼성생명' '금융일류화' 주도... 계열사 인사권까지?

미전실 소속 추진팀 해체...팀원들 각 계열사로 복귀 '생명' 영향력 확대...지주사 전환 속도내긴 어려울듯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 금융'의 핵심조직으로 떠올랐다. 삼성생명은 지난 1957년에 설립돼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삼성의 금융계열사다. 주요 주주는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20.76%), 삼성물산(19.3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0.0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전실 해체로 미전실 소속이었던 '금융일류화추진팀'도 와해 수순을 밟

았다. 해당팀에서 근무했던 임영빈 부사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소속 회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삼성생명이 금융일류화 추진팀 구성을 할 만큼 입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일류화추진팀은 그동안 삼성 금융계열사들의 차세대사업 등 경영전략을 이끌어온 조직이다. 삼성의 주요 금융계열사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이 있다.

삼성생명 본관 건물 매각과 같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부터 삼성금융지주사 전환 작업까지 삼성금융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보험업계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회계기준 IFRS17 도입에 대한 준비도 금융일류화추진팀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일류화추진팀은 삼성금융 계열사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사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실질적인 인사는 금융일류화추진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미전실을 해체하면서 계열사 대표이사·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이에 삼성생명 대표이사의 권한과 삼성생명 이사회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질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법률전문가는 "지주사를 만들면 지주사가 계열사 인사문제를 관할할 테니깐 당장은 아니겠지만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융계열사 인사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은 당분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당분간 삼성은 오너리스크의 재관 준비 및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3월 예정된 그룹 해산안 이행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직장유암종은 암 아니다" 보험금 덜 주는 보험사들

경제성종양 분류... 20%만 지급 2008년부터 암-종양 진단 갈려 이전 가입 고객 전액 받을수 있지만 계약시점 아닌 진단시점 지급 '꼼수'

일부 보험사들이 직장유암종에 걸린 가입자들에게 원래 지급해야 하는 암 진단금의 약 20%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유암종은 직장(대장)의 끝부분-항문 부위에서 자라나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2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직장유암종은 가입시점의 표준약관과 의사진단에 따라 암으로 봐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암 아닌 경제성종양"이라며 암 진단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직장유암종은 2008년 1월 이전까지 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암으로 분류됐다. 5차 KCD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유암종은 암 또는 경제성종양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변경된 질병분류를 같은 해 4월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2008년 4월 가입자부터는 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 직장유암종이 암이 될 수도, 경제성종양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2008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직장유암종 환자는 암 진단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의 꼼수로 일부만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들이 2008년 4월 이후 진단 받았을 경우 보험사들은 '계약 시점'이 아닌, 직장유암종을 경제성종양으로도

직장유암종 분쟁

직장유암종
직장(대장의 끝부분-항문 부위)에서 자라나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

약관 내용
'08년 4월 이전 : 대다수 '암'과 '성피내암'만 구분, '경제성종양' 없음
'08년 4월 이후 : '경제성종양' 포함 (일반암의 20% 지급)

발생패턴①
가입시기 '08년 4월 이전, 진단 '08년 4월 이후
소비자 일반암(C20 or D37.5)(--)
보험회사 경제성종양(D37.5)

발생패턴②
가입 및 진단시기 '08년 4월 이후
소비자 일반암(C20)(--)/보험회사 경제성종양(D37.5)

불 수 있는 '진단 시점'의 질병분류표를 들이밀며 암 진단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은 가입시점의 약관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3월 A생보사의 암 진단금 지급 관련 "진단 시점이 아닌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2012년 5월 B손보사 관련 소송에서 "A씨(2008년 4월 이전 가입)는 조치점시를 통해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았고 모든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암 진단금 전액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신보, 보증 규모 45조까지 늘린다는데... 1년새 2.5조↑...재정여력 우려 목소리 대기업 지원 규모 줄이고 中企에 무게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규모를 최대 45조 원까지 확대한다. 2월 신보의 '2017년도 주요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연말까지 일반보증 총량이 43조 원으로 증액된다. 계획 자체만 놓고 보면 한 해 사이에 2조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에 추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금액인 45조1000억 원 이내에서 보증 총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최근의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신보의 재정

여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보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대신 매입하고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주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회사채는 신보가 100% 지급보증을 서준다. 이 유동화 회사보증은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뉜다.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차환하는 '일반 계정'과 대기업 등의 대규모 회사채 차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안정 계정'이다. 여기서 시장안정 계정은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을 말한다. 신보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기업 지원이 포함된 '시장안정 P-CBO' 규모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축소할 이후 내년 말 운용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혜택을 받은 기업 중에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성산업, 동부제철, 한라 등이 있다. 이들 5곳의 남은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2224억 원이다. 현대상선이 4675억 원, 한진해운이 4306억 원, 동부제철 1653억 원, 대성산업 1590억 원이며 한라 는 현재 보증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 지난해 말 신보의 시장안정 계정 총량은 4조9000억 원으로 올해 말 2조4000억 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일반 계정의 경우 작년의 2조4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 늘린 3조6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군인공제회 차기 금융 CIO, 내부에서 뽑는다

4월 임기 만료...외부 공모 않기로 인사 경쟁력 강화 근무의욕 고취 군인공제회가 차기 금융부문 부이사장(CIO·최고투자책임자)을 내부 인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2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올해 4월 1일 임기가 끝나는 금융 CIO 모집을 위한 외부 공모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부 인사들의 성과를 반영, 이달 중 차기 금융 CIO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군인공제회 A팀장 등 1-2명이 유력 차기 금융 CIO로 거론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차기 금융 CIO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 것은 내부 인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내부 인사도 성과를 내면 부이사장까지 승진

하는 사례를 남겨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여려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도 CIO를 외부 모집보다는 내부 승진을 통해 채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역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CIO 밑에 투자부문별 부(副) CIO를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

부분 공제회들이 외부 전문가를 CIO로 채용했지만 자체 역량이 높아지면서 내부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금융부문 CIO뿐 아니라 건설부문 부이사장(CIO)도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 자리 역시 내부 인사가 승진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자산 규모는 2014년 9조2000억 원, 2015년 9조5000억 원, 지난해 말 9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기관의 자산은 올해 말 10조4000억 원에 웃돌 전망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현대해상, 최대 32% 할인을 적용 후보험 '마일리지 특약'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할인 확대

최고 32%까지 할인을 확대
15,000km 이하 6% 할인 신설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다음달 1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보험 할인을 적용한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고객의 자동차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연간 주행 거리가 3000km 이하인 경우 기존 할인을 22%에서 업계 최고 수준인 32%까지 확대했다. 사진제공 현대해상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기정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복)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수요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가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넥스트 모바일’은 시 로봇·커넥티드카

‘MWC 2017’ 폐막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이달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은 모바일을 넘은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줬다. 분영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였지만,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음성인식 로봇과 전 세계 브랜드의 커넥티드 카들이 전시장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모바일, 그 다음 요소(Mobile. The Next Element)’라는 주제에 걸맞은 모습이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에서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 MWC 2017에서 한 관람객이 프랑스 오베르튀르의 로봇을 촬영하고 있다(왼쪽 사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에서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 MWC 2017에서 파나소닉이 커넥티드 카를 선보였다.

◇AI 대거 등장… 상공래티 머지 않았다 = 전시장에서는 AI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로봇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지나가다 요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 쳐다보면 인간의 형태와 비슷한 ‘휴머노이드’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기도 했다. 로봇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악수를 했다.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니 “기분이 좋다”고 표현하는 로봇도 있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싱글래티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는 기조연설이 채감되는 순간이었다. 싱글래티는 지적 도약이 생기는 특정 시점으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은 기대했던 수준엔 못미쳤다. 한 관람객은 SK텔레콤의 커머스봇에 한참 “아메리카노”를 외치다가 고개를 가웃하며 자리를 뒀다. 전시장

전시장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 인간 형태 ‘휴머노이드’ 로봇 눈길 스마트폰으로 차량 제어·점점 신기술 집약 ‘커넥티드카’ 경쟁도

이 시끄러운 탓에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또 독일의 도이치모바일 부스에서는 센서와 5G 네트워크를 이용해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흉내냈지만,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영국 우분투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역시 사람의 조종으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프랑스 오베르튀르의 로봇 역시 한계점

을 뛰어넘지 못하고 대화가 아닌 혼자 말에 머무는 모습이었다.

◇신기술 집약된 커넥티드 카의 향연 = MWC에는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커넥티드 카가 전시됐다. 스마트폰과 연결성을 높인 스마트카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미래 자동차 모습을 보는 듯했다.

파나소닉 부스로 들어가 커넥티드 카에 탑승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 등 일반 자동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차량은 집안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의 문을 잠그거나 여는 것이 가능하고 연료가 부족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앱으로 경고 알림을 울렸다. 또 고

장이 나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냈다.

스마트카는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삼성전자의 아티(Artik)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동된 푸조의 콘셉트카 ‘인스팅트(Instinct)’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운전 모드, 오디오, 조명 등의 설정이 가능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E-300 쿠페’에 스마트 폰 앱으로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량 등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휴렛팩커드(HP)와 인텔, SK텔레콤과 협력한 BMW 등이 커넥티드 카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유진 기자 eugene@

석화업계 “인도를 잡아라”

인도가 석유 화학업계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올해 수출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석유 화학 업계는 잠재력이 높은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12억6000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이며, 중국보다 높

미국·중국 이어 세계 3위 플라스틱 소비국 한화케미칼 CPVC 첫 수출지역으로 선정 SK·미쓰이 합작사 시스템하우스 설립

은 연간 경제성장률 7%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연간 1인당 소비량은 약 8.5kg에 달한다. 현지 플라스틱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약 8억8000만 달러 규모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염화비닐(PVC)의 인도 수출 물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인 약 150만 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이 PVC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 정부의 ‘클린 인디아’ 정책으로 PVC 수요가 늘면서 인도발 훈풍을 맞고 있다. 이에 한화케미칼은 3월부터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제2공장에서 생산하는 염소화폴리염화비닐(CPVC)의 첫 수출지역을 인도로 선택했다. CPVC는 PVC보다 염소의 함량을 약 10% 늘려 내열성, 내화학성, 내부식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도에서는 난방용 파이프를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자동차산업의 성장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고성능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다운스트림 제품과 스페셜티 소재의 수요 증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SKC와 일본 미쓰이화학의 폴리우레탄 합작사 MCNS는 인도 첸나이 인근 지역에 시스템하우스를 설립하고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SKC 관계자는 “인도는 연간 자동차 400만 대, 냉장고 900만 대를 생산하는 국가”라며 “첸나이 지역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도요타, نيسان 등 한국·일본계 폴리우레탄 주요 고객이 진출해 있는 곳으로, 오래 전부터 최우선 진출 지역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오연 기자 yerin2837@

‘5G 상용화’ 외친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 세계 첫 5G 통신 상용제품 풀 라인업 공개 SK “2019년 상용화”… KT도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차세대 통신기술 5G의 상용화가 성큼 다가왔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해온 IT 기업들은, 올해 MWC에서 일제히 ‘상용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세계 최초로 차세대 5G 통신 상용제품 풀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라인업은 개별적인 5G 시제품이 아닌 칩셋부터 단말, 네트워크까지 포함된 솔

루션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과 손잡고 오는 4월부터 일반 소비자 대상의 5G 고정식 무선통신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5G 상용화를 외쳤다. SK텔레콤은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올 연말에 강남, 분당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5G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퀄컴을 만나 연말까지 5G 칩셋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면서

“삼성전자의 고동진 사장, LG전자의 조준고 사장도 만나 양자 간 역할에 대해 협력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KT 역시 5G의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평창에서 5G가 어떻게 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보여줄 것”이라며 “5G 기반의 지능형 네트워크는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으로서 기존의 산업과 시장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유진 기자 eugene@

5G 시대의 개척은 국내 사업자가 주도할 전망이다. MWC 전시관에서 5G의 개념과 미래를 제시한 기업은 많았지만, 상용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업은 삼성과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과 미국의 버라이즌, AT&T에 불과했다.

한 이동사 임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의 선봉주자”라며 “다른 외국 기업들은 아직 4G 투자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해 5G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유진 기자 eugene@

LS산전 ‘日 스마트 전력 시장’ 공략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참가 태양광기술 등 핵심 솔루션 공개

LS산전이 ‘전력관리 자유화’ 시행 이후 성장세에 탄력을 받은 일본 스마트 전력 시장 공략에 나섰다.

LS산전은 일본 도쿄 국제전시장 빅사이트(Big Sight)에서 열린 월드스마트 에너지워크(WSEW) 산하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17’에 참가해 현지 주력 사업인 태양광 솔루션을 비롯해 스마트 에너지 토탈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1500여 개의 글로벌 전력·에너지·발전 기업이 참가하고, 스마트그리드 외에도 PV(태양광), 예코하우스 엑스포, 국제 수소·연료전지 엑스포가 동시에 열리는 등,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LS산전은 129.6㎡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일본 스마트 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솔루션을 공개했다. 전시장 전면부에 배치된 ‘스마트 발전 솔루션 존’은 현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LS산전 부스에서 회사 관계자가 관람객에게 DC 전력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S산전

진행되는 주요 사업 레퍼런스 솔루션을 소개하고, 이 분야 EPC(일괄 수주) 역량을 적극 홍보했다.

‘스마트 에너지 최적관리 솔루션 존’에서는 Δ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Δ1MW급 대용량 ESS 등 EMS를 활용한 특화 기술이 전시됐다. ‘스마트 DC 솔루션 존’에는 Δ초고압직류송전(HVDC) ΔDC 전력계통솔루션 Δ전력 개폐장치(RMU) Δ지능형관리 솔루션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 또는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DC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내세웠다.

정유현 기자 yhssoo@

LG전자, 美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 건설

2825억 투자… 연산 100만대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 생산

이달 초 미국 법인 신사옥을 착공한 LG전자가 테네시주에 세탁기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미 투자여서 주목된다.

LG전자와 미국 테네시주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주 청사에서 빌 해슬렘 테네시 주지사, LG전자 H&A 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조주완 전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맥밀란 클락스빌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전자 세탁기 공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G전자는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 클락스빌에 2019년 상반기까지 2억5000만 달러(약 2825억 원)를 투자해 세탁기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LG전자는 6년 전인 2010년부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세탁기 생산지를 검토해 왔으며, 2014년 물류 인프라, 현지 부품 공급, 인건비 등을 고려해 8개 주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현장 실사, 주 정부 지원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뒤, 지난해 말 테네시주를 포함한 4개 주를



LG전자 미국 세탁기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LG전자

2차 후보지로 압축했다. 최근까지 각 후보지에 대한 사업경쟁력을 검토한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 관련 협상을 진행한 LG전자와 테네시주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미국 신공장 건립으로 물류 비용과 운송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관련 세금 감면 혜택도 현재 수준의 원가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공장의 세탁기 생산능력은 연간 100만 대 이상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미국 현지에 판매할 세탁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요 전략 시장인 미국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현지 생산 체제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제품과 마케팅 투자를 통해 고객이 선택하는 1등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자율주행 기술 선도”

연내 10배 정교한 ‘T맵’ 공개… 2019년 BMW와 커넥티드카 출시

“자율주행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박정호(사진) SK텔레콤 사장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의 정확도를 지금보다 10배 높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차 전 단계인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스마트카)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T맵을 HD(초정밀)급으로 고도화해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올 하반기 해당 서비스를 내놓고자 글로벌 그래픽 카드 업체 엔비디아와 협력 중이다. 박 사장은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지금보다 10배 정도 정교한 HD(초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을 위한 첫 단계로 엔비디아와 T맵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주행 중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무선으로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올해 중·하반기에



상용화할 방침이다. 박 사장은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차 전체에 센서가 부착돼야 하는데 센서가 차 밖의 도로 환경이나 주변 차량과 통신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영역”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5G가 상용화되는 2019년 BMW코리아와 커넥티드 카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사장은 미래 성장 축으로 미디어-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3가지를 꼽았다.

박 사장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 중 하나가 미디어”라며 “SK텔레콤의 모바일 TV 옥수수가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법근 기자 nova@

삼성전자, 글로벌품질혁신실 신설

실장에 김중호 삼성중공업 사장

삼성전자가 2일 대표이사 직속으로 글로벌품질혁신실을 신설하고, 삼성중공업 생산부문장인 김중호 사장을 실장으로 위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중호 사장은 삼성전자 세트 사업 전반에 걸친 품질과 제조 혁신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글로벌품질혁신실 신설은 지난해 ‘퀄리티노트’ 발화 사태와 같은 초유의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최고위층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은 삼성전자 ‘품질경영’에 오점을 남겼다. 제품 신뢰도 하락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것. 이번 글로벌품질혁신실 신설은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도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시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부품에 대한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제품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품질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이번 조직 신설은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계열사 자율경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송영욱 기자 sy@

혼밥·혼술·혼행족 트렌드...이젠 '나만을 위한 작은 사치' 추구

2030 '포미족' 새 소비층으로 뜬다

혼족 인사이트

건강 관심 많고 자기관리·자기만족 가치 여행·레저·취미생활 지출 아끼지 않아

LG '디오스 와인셀러'·'트롬 스타일러' 식물성 음료 '아몬드 브리즈'도 인기 높아 집꾸미기 열풍으로 홈퍼니싱 시장 급성장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혼밥, 혼술, 혼행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내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세대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자기 만족적 소비를 추구하는 20~30대 '포미족'이 유통업계에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와인을 즐기는 포미족을 위해 LG전자는 '디오스 와인셀러'를 출시했다. 모델이 와인셀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블루칩으로 최근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추구하는 '포미족(For Me 族)'들이 떠오르고 있다.

포미족이란 △건강(For Health) △싱글(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로 자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혼밥, 혼술, 혼행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내 인생은 한번 뿐(You Only Live Once)'이라는 세대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자기 만족적 소비를 추구하는 20~30대 '포미족'이 유통업계에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5~39세 가구의 소비 지출 비중은 64.5%로 절반이 넘으며, 이 중 대부분이 건강, 여행, 자기개발, 레저, 취미 등에 지출을 더 늘리고 싶다고 답해 앞으로 포미족들은 유통업계의 블루칩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유통업계에서는 포미족들을 겨냥한 제품이나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LG전자는 평소 와인을 즐기는 포미족을 위해 '디오스 와인셀러'를 출시했으며, 옷 관리와 깔끔한 스타일

에 관심이 많은 포미족들을 위한 '트롬 스타일러'도 시장에 내놓았다.

포미족들은 모바일 커머스 판매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료 중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료들은 자기구매통이 타 음료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0% 캘리포니아산 프리미엄 아몬드로 만든 식물성 음료 '아몬드 브리즈'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자기구매통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건강에 관심이 많고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2030 포미족들이 자기관리를 위한 필수 음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몬드 브리즈' 측은 "아몬드 브리즈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진행해 보니 20~30대들의 이용 비중이 높고, '자기구매통'이 매우 높은 제품군"이라며 "다이어트, 홈트레이닝 등의 트렌드와 맞물려 아몬드 브리즈

가 자기관리에 관심이 큰 '포미족'들의 건강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미족은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데도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나만의 스타일로 집 꾸미기 열풍이 불면서 인테리어와 홈퍼니싱 시장도 급성장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7조 원이던 홈퍼니싱 시장은 2023년에는 1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홈퍼니싱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리바트는 최근 미국 최대 홈퍼니싱 기업 윌리엄스소노마와 계약을 맺고 대표 브랜드 4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포미족들이 전체 소비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지금 호텔은

웨딩시즌, 웨딩패어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웨딩 쇼케이스인 조이풀 웨딩을 개최한다.

봄보다 먼저 온 예비부부 모셔요

롯데호텔서울 '퓨어 화이트' 테마 콘래드서울 '맞춤형 웨딩' 진행 JW메리어트는 가든웨딩 론칭

은 어반 부티크 웨딩쇼를 통해 가든웨딩을 새롭게 론칭한다. 도심 속 자연이 느껴지는 프라이빗 웨딩을 추구한다.

호텔업계는 결혼식 시즌인 봄을 맞아 웨딩패어를 열고 다양한 웨딩 브랜드를 함께 선보여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눈부신 상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롯데호텔서울의 크리스탈볼룸은 다채로운 연출을 통해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웨딩이 가능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번 웨딩 프리뷰에서는 '퓨어 화이트'를 테마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신부 입장 순간의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셉트와 싱그러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무대 연출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웨딩 프리뷰에서는 3코스 웨딩 메뉴 시식, 퓨어 화이트 웨딩 세팅, 샴페인 리셉션, 포토타임, 롯데호텔서울 웨딩 토크 패키지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콘래드 서울에서 제안하는 웨딩 트렌드는 '맞춤형 웨딩'이다. 콘래드 서울은 웨딩 세팅, 메뉴, 규모에 따른 장소 등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 웨딩의 시작과 끝까지 알맞은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랑, 신부만의 맞춤형 웨딩을 진행하고 있다.

콘래드 서울은 다양한 웨딩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규모,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웨딩을 계획할 수 있다. 더불어 웨딩 메뉴, 플라워 데코레이션, 웨딩 세팅 등 웨딩의 시작부터 끝까지 웨딩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고객 맞춤형 웨딩을 선사한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에서부터 느껴볼 수 있는 가로 17m, 세로 4.8m 98개의 LFD로 연결해 완성한 UHD 영상을 통해 미디어 아트와 신랑·신부의 스토리를 캔버스 삼아 다양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연출할 수 있다. 또 채널 보스(Bose) 음향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실감 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또한 웨딩 쇼케이스인 조이풀 웨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유쾌한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뷰티 브랜드 프레쉬(Fresh)가 진행하는 뷰티 클래스, 김경정 헤어페어스에서 제안하는 '스타일리쉬 웨딩·데일리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박민현 실장이 제안하는 '스마트 스타일링 포 커플'과 같은 참여형 클래스와 더불어 드비어스, 플래드브 보페, 휴고 보스, 드롱기, 오픈 갤러리에서 운영하는 전자·체험 부스를 자유롭게 둘러보며 웨딩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은 콘래드 웨딩팀 지배인은 "최근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엔 비용을 아끼지 않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며 웨딩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정해진 관습대로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과 원하는 부분을 생각해 구성하는 맞춤형 웨딩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x

맥주같은 '질소 커피'...커피업계 새 바람

이디야·투썸플레이스 등 잇따라 출시 스타벅스코리아도 이르면 이달 내놔

"얼핏 보면 맥주 같기도 하고, 마셔보면 커피네." 커피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달아 '니트로(질소) 커피'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니트로 커피는 차가운 물을 원두에 천천히 떨어뜨려 장시간 추출한 콜드브루에 질소를 주입해 만든다. 흑맥주를 연상케 하는 풍부한 거품과 청량감 있는 목넘김이 특징으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작년 7월 중순 니트로 커피를 출시한 드롭탑은 출시 5개월 만에 10만 잔을 팔아 화제가 됐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8일 니트로 콜드브루 판매

처를 현재 '포스코 사거리점' 등 직영점 6곳에서 50여 매장으로 늘리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전 점포로 확산할 계획이다. 투썸플레이스의 콜드브루는 지난해 6월 전 매장 출시 이후 현재까지 커피군 매출 톱3를 지키고 있다. 여름 성수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음으로 판매량이 많을 정도다. 가격은 6000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디야가 자체 개발한 '이디야 리얼 니트로'의 출시를 알렸다. 일반 콜드브루 커피 위에 기존 휘핑기를 통해 아산화질소(N2O)로 거품만 만들어 휘핑크림처럼 올리는가 하면, 에스프레소와 얼음을 블렌더에 넣고 고속으로 갈아 니트로 커피와 비슷한 질감을 만들었던 방식과는 차별화했다. 가격은 3900원으로 저렴하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이디야커피랩에서 1년



이디야가 자체 개발한 '이디야 리얼 니트로'를 직원들이 지난달 27일 선보이고 있다.

여간 자체 R&D를 진행해 개발한 획기적인 추출 방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니트로 커피를 출시할 방침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압구정본점 · 무역센터점 · 목동점 · 대구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울산점 · 판교점 · 현대시티아웃렛 동대문점

현대백화점



Kitchen & Tableware | Home Deco | Bath & Fragrance | Fabric

수도권 서부지역 주요 분양 물량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 시기	시공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3 일대	안산 라프리로	59~99	2,017 (926)	3월	SK건설 대우건설 푸스코건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7	그랑시티자이(2단계)	미정	3,345	5월	GS건설
김포시 한강신도시 Ac10블록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101	696	하반기	호반건설
시흥시 능곡동 장현지구 C1블록	시흥 장현지구 리슈빌	73~103	693	5월	계룡건설
시흥시 능곡동 장현지구 B6블록	시흥 장현지구 리슈빌 뉴스테이	97~107	651	5월	계룡건설
시흥시 은계지구 B4블록	시흥 은계 제일풍경채	60~85	429	5월	제일건설

* 위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각 사

“동탄 안부럽다” 경기 서부의 재발견

김포 김포골드라인 ‘서울 접근성’ 강화
안산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신안산선
시흥 9개 고속도로·5개 전철망 예정
‘대형 교통호제’에 수요자 관심 높아져

동탄·다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오던 경기 서부권 부동산 시장이 김포-안산-시흥 등을 중심으로 분위가 반전을 꾀하고 있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西)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덜 받던 곳이었지만, 최근 대형 교통 호제 소식과 더불어 생활인프라가 점점 모습을 갖추며 신용 주거태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92대 1에 그치던 안산시는 대규모 들어서는 복합개발사업과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초지역 KTX 유치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분양한 ‘그랑시티자이’의 경우 342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안산 최고 기록인 3만 1738명이 몰린 데 이어 5일 만에 조기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김포시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과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른 가운데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김포골드라인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될 경우 지하철 5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20분대 도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김포시 부동산 시장도 우상향 흐름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분양한 ‘김포푸른 꿈에그린 2차’(1070가구)의 경우 계약 5일 만에 100% 완판되기도 했다.

시흥시는 2024년까지 총 9개의 고속도로와 5개의 전철망이 개통(예정)되며, 수도권 서부지역 중심지로 재평가되고 있다. 은계지구 개발에 따라 ‘시흥은계지구 한양수자인’, ‘은계 호반 씨밋플레이스’, ‘은계 우마린’ 등 3개 단지 모두 순위 안에서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시세를 비롯해 각종 수치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년간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김포시(16%), 안산시(13%), 시흥시(13%)는 경기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미분양 가구를 모두 더해 587가구(2016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서부권의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으로 다소 주목받지 못했지만, 다양한 개발 호재 등에 업고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타고 있다”며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KTIX광명역 바로 앞... 800m 스트리트몰

GS건설 ‘광명역자이타워’ 이달 분양
 지식산업센터 768실·상업시설 228실



광명역자이타워 조감도. 사진제공 GS건설

GS건설이 KTX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구역 지원3-2블록 일대에서 ‘광명역자이타워’를 이달에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광명역자이타워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768실과 지상 1층-3층 규모 상업시설 228실로 구성된다. 전체 연면적은 11만9835.79㎡다. 지식산업센터로는 드물게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옥상정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넉넉한 주차 공간(법정기준의 약2배)이 제공된다.

상업시설의 경우 자이그랜드타운 내 800m에 달하는 스트리트몰이 형성되며, 일부 호실의 경우 차별화된 테라스 공간과 데크 설치, 바깥 지붕까지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상업시설인 만큼 주5일 고정 수요 확보가 가능하며, KTX광명역(호선 포함), 세물공원,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풍부한 주말 수요까지 누릴 수 있다.

교통 인프라도 돋보인다. 전국으로 운행하는 KTX 열차의 70%가 경유할 만큼 수도권과 광역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은 KTX,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도

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및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최근에는 광명-사당, 광명-강남 간 KTX셔틀버스 운영으로 15~20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한 강남 접근성도 갖췄다.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배후 수요도 기대해 볼 만하다. 하루 이용객 2만3000여 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KTX 이용 유동인구는 물론 광명역도 심공항터미널(계획), 사후면세점(계획), 석수스마트타운, 의료복합클러스터 등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역자이타워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동시 분양되며 분양홍보관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273-1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은 2019년 하반기다.

구성현 기자 carlove@

SK건설, 경기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1945가구 규모... 2019년 9월 분양

SK건설은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고천나구역 사업은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지하 2층-지상 39층, 15개 동 총 194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1945가구 중 일반 분양분 1041가구, 조합 분양분 806가구, 임대 98가구로 계획돼 있다. 2019년 9월에 착공과 분양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SK건설은 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총 도급액은 약

3500억 원이다. 고천나구역은 의왕IC-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정역이 2022년 개통되는 등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현충탑공원·모락산·오봉산 등이 인접해 자연환경도 좋다. 2020년 고천 복합행정타운이 준공되며 고천초·왕곡초·의왕중·경기외고·우성고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장진용 SK건설 도시정비사업1실장은 “고천나구역은 교통은 물론 쾌적한 자연환경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이라며 “SK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으로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신탁사와 함께... 달라진 아파트 재건축

수정아파트 예비신탁사에 한국자산신탁 여의도에서만 벌써 3번째 신탁방식 진행 사업기간 1~3년 단축·투명성 확보 장점 아직 성공사례 없어 일부 우려의 시선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수정아파트가 예비 신탁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최종 선정했다. 여의도에서만 벌써 3번째 신탁 방식 재건축 단지다.

부동산 신탁사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꾸리는 단지가 점차 늘고 있다.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 조합 재건축이 아닌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재건축 우선협상 대상 신탁사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를 열고 예비신탁사로 한국자산신탁을 최종 선정했다. 여의도에서만 벌써 3번째 신탁 방식 재건축 단지다.

1976년 8월 입주한 329가구 규모의 수정아파트는 680가구의 아파트와 348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수정아파트는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어서 다른 곳보다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가 잇따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신탁사를 선정했다. 완공 40년을 넘으면서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시범아파트는 한국자산신탁

을 재건축 예비 신탁사로 선정했다.

KB부동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공작아파트는 지난달 말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1976년 준공된 373가구 규모의 공작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636가구, 오피스텔 386실의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한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대교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모두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광장아파트는 조만간 총회를 거친 뒤 예비신탁사 선정에 나선다.

서울 재건축의 중심지인 강남4구에서도 신탁방식 재건축 바람이 거세다. 서초구 방배7구역과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가 한국자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상태다.

신반포 2차와 신반포 공전아파트도 신탁사 선정 과정에 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가 지난해 코리아신탁을 재건축 사업 단독시행자로 지정했다.

신탁사들의 재건축 사업 진출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단지 주민들이 사업시행사로 신탁사를 선정하면 해당 신탁사는 단독 시행사가 돼 전방적인 재건축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다. 조합 재건축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등으로 시간을 허비해 사업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신탁 방식은 최소 1~3년 이상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금력과 투명한 사업 집행을 내세운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11개 신탁사 중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신탁사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피하기 위해 신탁 방식을 선택한 일부 단지가 과연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탁 방식 재건축이 장점도 많지만 아직 성공 사례가 없어 사업 방식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을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순조롭게 끌어갈지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내 손으로 직접 기른 신선한 오렌지에만 파머의 이름을 허락한다”

농장에서 온 프레스드주스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플로리다 농부가 키우고, 델몬트가 엄선한 생오렌지 10.3개를 통째로-프레스드 착즙으로 갓 짜낸 듯 신선하게!

*오렌지 750ml PET 17종

파머스 주스바 Farmer's Juice Bar

NFC 100% ORANGE 순수착즙 펄프 오렌지

생오렌지 10.3개

별한 방울 없이 생오렌지 10.3개를 그대로 착즙한 주스

오렌지 100% 750ml (340 kcal) 병용음료

파머스 주스바의 신선함은 저온충전 어설팩(PET)로부터-저온충전(리엄) 고온에서 순간살균한 주스를 무균밀폐 공간에서 저온상태로 어설팩(PACK/PET)에 충전하여 주스의 맛과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생산방식입니다

◆ 제품량량 ◆ 1L: 오렌지액 100%, 지용성 100% ◆ 750ml & 240ml: 오렌지액 95%, 펄프 5% / 지용성 95%, 펄프 5%

롯데칠성음료

[유통기간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트럼프 리스크’ 후퇴... 공은 연준으로

의회연설 호재 은행주 등 강세 기준금리 인상 관측도 힘 실어 이달 14일 열리는 FOMC 관심 美 국채 금리 1.28%까지 올라



연준지수는 2.8% 뛰었다. 기준금리 움직임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약 1.28%까지 올라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시뮬러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베이지북에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단기 전망에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한 낙관 정도는 이전 보고서보다 다소 낮아졌다”면서도 “그러나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며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점진적 속도로 계속 확

대하고 있다”고 긍정적 견해를 유지했다.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의 경기판단을 종합한 보고서로, 이번 베이지북은 오는 14-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주요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베이지북의 경기 진단과 더불어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3월 금리인상 관측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는 전날 “3월 금리인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터뷰에 나선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로버트 카플란 델라웨어 연은 총재도 이달 금리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FT가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뛰었다. 이는 지난주의 34%에서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또 트레이더들은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처음으로 연준의 지난해 12월 전망과 같았다. 이

전까지 트레이더들은 연준보다는 금리인상 전망에 소극적이었는데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UBS자산운용의 제리 루카스 선임 투자 전략가는 “연준은 확고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며 “미국 경제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그 얼람 오피안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랠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경제에 대한 연준의 분명한 낙관론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투자자들은 과거처럼 금리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올해 3차례 인상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설명했다. J.J. 키나한 TD아메리트리이드 수석 시장 투자전략가는 “과거에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인상을 시장 탈선 요소로 봤다”며 “그러나 이제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은 FOMC를 앞두고 3일 마지막 연설을 한다. 이번 연설이 이달 금리인상에 명확한 신호를 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中, 트럼프와 마찰 속 양회 개막 구조개혁 중점 ‘시코노믹스’ 화두

(시진핑+이코노믹스)

경제 견고함·안정성 추구 산업 과잉생산 규모 줄이고 수익 부진한 기업 수 감소 GDP 목표도 초미 관심사 외신 “6.5%로 정할 것”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미국과의 환율·무역 등 경제 마찰 전운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올해 어떤 핵심 정책과 목표를 설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양회에서 시장이 관심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인 체제 군허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이번 양회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인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집권 2기를 앞두고 1인 체제 군허기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올해 10~11월로 예정된 19차 당대회로 집권 2기를 맞게 된다. 통상 중국 최고지도자는 총 10년의 집권 기간에 1기 5년은 권력기반을 다지고, 2기 5년은 자신의 집권의지와 정책 방향을 실현 관철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는 ‘시코노믹스’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이다. 이미 시 주석은 양회 개막 전부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경제 전환과 혁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중앙재정영도소조 제 15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산업 과잉생산 규모를 줄이고 수익이 부진한 기업들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할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7%를 기록했다. 이 같은 GDP 성장률은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6.5~7.0%’를 달성한 수치이나 이는 26년 만의 최저치였다. 중국 정부가 올해도 구간별 목표를 제시할지, 작년 목표치보다 낮출지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6.7%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취임 첫 상·하원 합동연설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오른쪽)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 후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속관계’ 美 언론들마저 의회 데뷔연설 호평

“미국의 낙관적 미래상 말해” 여론조사 긍정적 평가 8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데뷔 연설을 놓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작년 대선 유세 때부터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미국 언론들마저 긍정적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취임 후 첫 의회 합동 연설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NYT는 1일 인터

넷에서 “취임식 당시 암울한 연설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낙관적인 미래상을 말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원고를 낭독한 트럼프는 침착하고 충실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로부터 ‘가짜 뉴스’라고 혹평을 받아온 CNN은 “미국 중심주의로 놀랄 만한 것은 없었다. 이라크와 시리아,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등 외교 정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CNN은 인터넷판에서 “일반적인 국정 목표를 내걸고 취임식과 공화당 대회에서 보여준 암울한 면을 보이지 않는 등 돈을 바꿨다”는 견해

를 나타냈다. CNN이 트럼프의 연설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량이 이번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진지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세계 개혁과 복지 정책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포क्स뉴스는 “트럼프가 감세와 더 나은 무역협정·이민정책·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엔진을 재시동 건다고 소리 높여 의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미국 상무장관은 패션 테러리스트? 트럼프 연설때 슬리퍼 신어

미국 새 행정부의 역관장자 각료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슬리퍼를 신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로스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티븐스엔우트의 슬리퍼를 신고 트럼프의 연설을 지켜보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노출됐다. 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로스가 신은 슬리퍼 한쪽에는 미국 상무부 로고도 찍혀 있었다. 이 슬리퍼는 약 495달러(약 55만 원)에 판매 중이며, 상무부 로고를 새겨 맞춤 제작한 것을 감안하면 6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티븐스엔우트는 뉴욕과 팜비치에 매장을 두고 있다. 이 제품은 스티븐스엔우트 웹사이트에서 “침바지부터 저녁에 입는 정장까지 모두에 어울리는 핸드메이드 슬리퍼”라고 소개했다. 이날 로스는 제품 설명에 맞게 슬리퍼를 착용했지만 정장 차림에는 다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구색이다. 로스 장관은 올해 79세로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의 회장을 지낸 월가의 재벌로 유명하다. 특히 로스는 철강산업에 정통하다. 경영난에 빠진 철강 기업을 구조조정해 되팔아 투자 이익을 남겼다. 포브스의 2014년 집계 당시 재산은 29억 달러였다. 뉴욕포스트는 현재 로스의 재산을 25억 달러로 추정했다. 로스와 그의 아내는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집을 갖고 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미국과의 환율·무역 등 경제 마찰 전운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올해 어떤 핵심 정책과 목표를 설정할지 주목된다. 올해 양회에서 시장이 관심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인 체제 군허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이번 양회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인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집권 2기를 앞두고 1인 체제 군허기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올해 10~11월로 예정된 19차 당대회로 집권 2기를 맞게 된다. 통상 중국 최고지도자는 총 10년의 집권 기간에 1기 5년은 권력기반을 다지고, 2기 5년은 자신의 집권의지와 정책 방향을 실현 관철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는 ‘시코노믹스’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그룹	시가총액	공모가 책정
알리바바그룹	1694억	2014년 9월 18일
페이스북	812억	2012년 5월 17일
JD닷컴	262억	2014년 5월 21일
스냅*	236억	2017년 3월 1일
힐튼월드와이드홀딩스	197억	2013년 12월 11일

스냅, 드디어 IPO ‘D-데이’

총 2억주...시초가 17달러 전망 시가총액 예상넘는 240억달러 “폐북처럼 성장세 이어갈 것”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차세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스냅(Snap)이 드디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 시장에서는 스냅이 스냅의 IPO 이후 페이스북처럼 성장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트위터처럼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스냅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2일 ‘SNAP’이라는 종목 코드(티커 심볼)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 IPO로 스냅이 발행하는 주식은 총 2억 주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모 규모보다 10배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시초가가 주당 1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냅이 예상한 공모가 범위인 주당 14~16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회사의 기업가치는 당초 전망된 222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최대 240억 달러(약 27조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중국 최

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이후 최대이며, 2012년 상장한 페이스북 이후 미국 기술주 최대 IPO 기록도 쓰게 된다. 스냅은 수신 10초 후 메시지가 사라지는 ‘휘발성’ 기능으로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메시징 앱 스냅챗의 모회사다. 2011년 스탠퍼드대 학생이던 에반 스피겔과 바비 머피가 설립했다. 스냅챗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질 사용자가 1억5000만 명에 달한다. 2014년 페이스북이 3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스냅이 되팔려 놓으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스냅의 IPO 성공 여부에 따라 최근 매달렸던 미국 IPO 시장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스냅의 IPO 이후 전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스냅이 카메라나 스마트 안경 사업 등으로 사업 폭을 넓히고 있어 페이스북처럼 IPO 이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당 수익성이 여전히 낮아 IPO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트위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키워드로 보는 이슈

국경조정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신문 지면에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서 팔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에는 막대한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팔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미국에서 생산해 수출해야 유리한 구조여서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 같은 미국 수출 기업들은 환영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월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는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국경조정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트럼프는 “역사적인 세계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어디에서 누구와도 경쟁하고 변장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겠다”며 여당인 공화당이 추진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현재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수출하면 많은 나라들이 매우 높은 관세와 세금을 매기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는 아예, 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해서 번 돈 면세, 수입해서 美서 팔면 과세 무역적자 5000억달러 줄이면 성장률 3% 가능

이론적으로 국경조정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입어 미국은 무역 적자가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5000억 달러(약 565조 원)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3%포인트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국경조정세로 관세 면제를 받은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본다. 미국 기업의 비용 감소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이론일 뿐이라는 반박도 거세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높은 세금을 매기면 수입품 가격이 더 비싸져

결국 소비자들과 기업에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한국 기업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다양하다. 국경조정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장기적으로 국경조정세는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가 공언한 ‘역사적 세계개혁안’에 국경조정세가 포함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아시아인 공감하는 브랜드 빌딩 플랫폼 될 것”

(brand-building)

‘해먹남녀’ 스타트업 정지웅 바이탈hint 대표

각국 음식·라이프스타일 소개... 국내 이용자 200만명 ‘미식남녀’ 중진출 한달만에 월간 조회수 1300만 달성 트렌드 선도보다 시대 흐름 읽고 반응하는 적응력 비결

“신사업일수록 그 시대의 고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변용해 고객과 함께 호흡하며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정보성 콘텐츠로 중국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요리 레시피 공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해먹남녀’로 널리 알려진 바이탈hint의 정지웅 대표(37)는 지난달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제품이 시장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반응하는 적응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이탈hint는 각국의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관련 제품을 비디오표 판매하는 콘텐츠 커머스 스타트업이다. 2014년 설립된 바이탈hint는 ‘해먹남녀’ 푸드 콘텐츠 플랫폼으로 현재 200만여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말 중국

에 진출해 해먹남녀의 중국 버전인 ‘美食男女(미식남녀)’ 콘텐츠 커머스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동영상 월간 1300만 조회수를 달성하고 10여 곳의 영상 플랫폼과 4곳의 현지 커머스 기업과 제휴를 맺는 등 만 3년을 넘긴 스타트업으로서 드물게 해외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며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콘텐츠 산업에서 정 대표가 읽어낸 흐름은 무엇일까. 그는 “중국 젊은 세대는 식품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해외 브랜드를 신뢰하고 선호한다. 그러나 이를 다루는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콘텐츠를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감성의 영상 콘텐츠로 녹여내는 것이 바이탈hint의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개발자 출신으로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를 거치며 사업 기획과 개발 부문의 경험을 쌓아온 정 대표는 2009년에

도 패션 부문의 콘텐츠 스타트업 ‘클럽베닛’을 창업하고 성장시켜 동남아 유수 기업에 성공적으로 M&A를 진행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당시 경험을 통해 앞으로 패션보다는 음식과 라이프스타일 영역에서 더 큰 변화가 불어올 것으로 전망하게 됐고, 콘텐츠의 힘이 더 큰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두 번째 창업에 나서게 됐다. 콘텐츠 분야야말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모바일 콘텐츠 업체가 사용자의 즉각적인 반응만을 기대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나, 상업적인 광고형 콘텐츠를 만든다”면서 “결국 전자는 충성도를 이용하는 공감을 얻기 어려워 수익화가 힘들고, 후자는 단기적인 성과는 좋지만 장기적인 수익모델의 지속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아시아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믿을 수 있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이라며 “콘텐츠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들과 빠르게 호흡하며 수많은 브랜드들의 성공을 돕는 아시아 시장의 브랜드 빌딩(brand-building) 플랫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미식남녀’ 콘텐츠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 바이탈hint의 정지웅 대표. 사진제공 바이탈hint

세계여성 인물사전

(63) 보도부인

신라 법흥왕비로 출가하여 영흥사 개창

보도부인(保刀夫人)은 성은 박씨이고, 신라 제23대 법흥왕(法興王, 재위 514~540)의 왕비이다. 보도부인의 다른 이름으로는 ‘삼국유사’에는 파도부인(巴刀夫人), ‘울주천전리각석’에는 부결지비(夫乞支妃)가 전한다.

법흥왕은 527년에 불교를 공인하고, 529년에 살생을 금지시킨 왕이다. 법흥왕은 불교를 공인한 후에 흥륜사(興輪寺)를 창건하고 출가하였는데, 법흥왕비인 보도부인 역시 영흥사(永興寺)를 개창하고 출가하였다. 보도부인의 법명은 법류(法流) 또는 묘법(妙法)이다.

법흥왕비가 영흥사를 세우고, 여승이 된 것은 사씨(史氏)의 유휘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추왕(麻婁王, 재위 262~284년) 대에 아도기라(阿道)의 누이인 사씨(史氏)에게 불교를 전하였다. 사씨는 신라에서 최초로 여승이 되었고, 영흥사라는 절을 지어서 거주하였는데, 법흥왕비가 이를 따랐던 것이다. 법흥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신라 금석문이 있다. 국보 제147호인 울주천전리각석에는 선사시대의 조카·바위그림 및 역사시대의 여러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중에 법흥왕 12년(525)과 법흥왕 26년(539)에 새겨진 명문이 있는데, 법흥왕 26년의 명문에 보도부인과 지도부인이 각각 부결지비(夫乞支妃)와 지물

시혜비(只尸妃)로 기록되어 있다.

보도부인이 그의 딸인 지소부인과 지소부인의 아들인 심맥부자(深麥夫知)와 함께 천전리계곡에 놀러 와서 이전 에 온 이들을 추모한 내용을 바위에 새겼던 것이다. 심맥부자는 후에 진흥왕으로 즉위하는데, 울주천전리각석의 명문으로 보아 보도부인이 진흥왕의 즉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울주천전리계곡은 돌에 새겨진 여러 문양 및 명문으로 보아 선사 이래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도부인이 천전리계곡에 행차한 목적이 신성지역에서의 종교적 행사를 위한 것이었거나 또는 진흥왕의 즉위와 관련한 정치적 행사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6세기의 신라에서 왕실 여성의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울주천전리각석.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될 당시에 불교를 공인하고, 살생을 금지하고, 흥륜사를 창건한 법흥왕만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법흥왕비인 보도부인 역시 법명을 받고 출가하였고, 영흥사를 지어서 그곳에 머물렀다. 법흥왕비는 자신이 출가하여 영흥사에 머물렀던 이유에 대해 법흥왕의 뜻이 아닌 신라 최초의 비구니인 사씨의 행적을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도부인은 신라 조전(初傳) 불교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것이다. 이현주 한국고대사 전공·성균관대 야구대강사

여성·박물관 권립추진협의회

중성미자 규명 김수봉 교수 러시아 ‘브루노 폰테코르보상’

김수봉(사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물리학 분야의 권위있는 상인 러시아 ‘브루노 폰테코르보상’을 받는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러시아 합동원자핵연구소(JINR)는 지난달 27일 김수봉 서울대 교수를 올해 브루노 폰테코르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교수와 함께 왕이팡 중국 고에너지물리연구소(HEP) 박사, 니시가와 고이치로 일본 고에너지가속기연구소(KEK) 박사도 같은 상을 공동 수상한다.

이들 3명의 물리학자는 마지막 남은 중성미자의 변환상을 밝혀낸 주인공이다. 중성미자는 만물을 이루는 기본 입자 중 하나로, 핵붕괴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된다. 질량이 매우 작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여 이른바 ‘유령 입자’로 불린다.

브루노 폰테코르보상은 중성미자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러시아 과학자 폰테코르보 박사를 기리고자 1995년 제정됐다.

김 교수는 이번 수상과 관련해 “40명의 국내 연구진과 같이 수행한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중국 연구진은 200명 정도이고 일본 연구진은 약 400명인데, 여기 비하면 우리 상황은 열악하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정승호 前한국일보 부국장 신문윤리위 독자불만 처리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124차 이사회를 열어 정승호 전 한국일보 편집부국장(64)을 새 독자불만처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정승호 신임 위원은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78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2002년까지 한국일보 경제부장과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2013~2014년에는 뉴시스 논설고문을, 2015~2016년까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과 내외뉴스통신 대표를 지냈다.

정 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김정용 기자 cogito@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전보 임용제정) > △공직감찰본부장 이익형 △기획조정실장 손창동 (승진 임명제정) △감사교육원장 심호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 △홍보담당관실 문경호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주 △기업환경과 과소 △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 △정책총괄과 선문규 △인재경영과 임진상 △기술서기관 승진 △타당성심사와 이철규

◆환경부 <통합합허가제도과장 이영석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과장 장이재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과장 정영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과장 최동호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 △첨단항공과장 정용식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김규철 △수도권정책과장 김희수 △기술정책과장 정재호 △수자원사업팀장 김철기 △산공항공과장 김인 △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 조현준 △민자철도팀장 김태형 △중양도지수유위원회 사무국장 김철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희천 △부동산정책과장 박병석 △해외건설지원과장 김석기 △간선도로과장 백현식 △첨단도로안전과장 이상현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신철 (전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태진 △과장급 전보 △어업정책과장 윤보노 △물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서 △해양보전과장 장요민 △수산자원정책과장 조일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 △은영지외과장 반상권 △과장급 전보 △행정법무담당관 장대호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전지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김성욱

◆국민안전처 <서기관 승진 > △상향담당관실 오장서 △홍보담당관실 박상래 △재난경감과 생기선 민방위과 김준식 △기술서기관 승진 △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 △재난관리총괄과 배상원 △비상대비지원과 최기영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이정민 △과장급 (전보) △창조범무감사담당관 오영렬 △인재정책과장 신병대 △인사혁신기획과장 김성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 교육과장 이광열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수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리지교육과장 장선정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지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서 서경원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과장 최성욱 > △경제통계과장 안형준

◆기상청 <전문원기제 가급 △기상기후연구개발원 교수요원 홍윤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신재희 △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광호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 △소상공인지원과 김길성 △해외시장과 진수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장 임윤기 △활동진흥본부장 이현수 △청소년활동인전센터장 천왕우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 전명기 △경영관리부서 이진원 △참여봉사부서 손의숙 △인준운영부서 안종배 △안전지원부서 이상준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연수기획부서 오재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부서 장호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실 실장 황태환 △경영지원본부장 이준호 △연구조정본부 인사팀장 이봉재 △경영지원본부 재무팀장 김용철 △경영지원본부 행정지원팀장 구영선

◆한국광해관리공단 <어급 승진 > △지역친화실장 최재의 △영남지사 광해사업팀장 임영철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정재용 △정보이사 김진성 △경영기획본부장 엄재성 △정보기술본부장 최재항 △기획총괄본부장 김유석

◆메타리프생명 <승진 >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 송영록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전무) 백재은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원장 겸 휴먼서비스대학원 인성교육학과장 송미경 △학부생상담센터장 겸 양성평등센터장 송현주 △여성연구소장 성혜경 △바롬인성교육연구소장 이윤선 △기독교사책연구소장 이정미 △교양영역책임교수 김보람 △한일휴먼네트워크사업단장 조대하 △미디어비즈니스사업단장 박진규 △미래인성교육사업단장 민세철 △교수사정관 이도희 △기독교학과장 겸 휴먼서비스대학원 기독교학과장 김유기 △행정학과장 겸 공공안전전공책임자 이수우 △교육심리학과장 겸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책임교수 △체육학과장 겸 스마트헬스케어전공책임자 겸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책임자 △원예생명조경학과장 겸 ICT경영상마트농업공학전공책임자 김윤진 △산업디자인학과장 박남준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장 겸 심리치료학과장 김현희 △도시환경예술디자인전공책임자 이재원 △바이오인포메틱스전공책임자 김병경 △바이오화학공학전공책임자 양현원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원진 △동양어대학장 오명근 △일본어대학장 박용구 △사범대학장 채호석 △자연과학대학장 권남익 △도서관장(서울) 송정남 △flex센터장 최재영

◆한성대 △기획처장 윤경준 △총무처장 조지연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서은경 △국방과학대학원장 구형희 △행정대학원장 전주상 △IPP사업단장 및 교육혁신실장 겸 교무처장 조세홍 △벤처창업지원센터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 김성현 △미래경영연구원장 홍홍식 △창업지원단장 홍정원 △국제교

류원장 및 언어교육센터장 김승현 △IPP사업단 부단장 장병희

◆배재대 △관광축제호텔대학원장 박준용 △교목실장 손의성 △ACE사업부단장 이현주 △박물관장 김종현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엄준철 △기술이전센터장 유태방

◆한양대 △서울캠퍼스 △입학처장 정재찬 △이제혜대학교장 권태원

◆건국대 △서울캠퍼스 △총장비서실장 황진규

◆조선일보 <승진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 홍준호 △부사장 방준우 △주필 양성훈 △AD본부장 이광희

부음

◆삼방자(승실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씨 별세, 김봉경(미국 오리건 군무)·정진수(원지검 검사)씨 모친상 = 1일, 평촌 한림대병원, 발인 4일, 031-384-4634

◆이상홍씨 별세, 이원희(전 세풍산업 대표)·준희(한국일보 대표이사)씨 부친상 = 28일, 서울삼성병원, 발인 3일, 02-3410-6914

◆김용원(전 경기대 예체능대학장)씨 별세, 일수(청담RG성형외과 원장)·남중(미국 김모어그림 시니어건축디자이너)씨 부친상 = 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02-2227-7584

◆한양음(예비역 육군 소령)씨 별세, 청(PWC컨설팅 이사)씨 부친상 = 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02-2227-7572

◆윤기두(전 프로그래머 KIA타이어즈 운영실장)씨 부친상 = 1일, 광주 금호저축은행, 발인 3일, 062-227-4383

◆강성호(금융투자협회 감사실장)씨 부친상 = 28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3일, 070-7816-0235

◆문화영(시인)·기전(광주YMCA 사무총장)·시정(대한항공 대표)씨 모친상, 김은화(전 주북음연합내과 원장)·김성재(기아자동차 부장)·이왕수(대한운수 대표)씨 장모상 = 1일, 광주 천지정례식장, 발인 3일, 062-527-1000

◆강병직(수상그룹 사장)·병권(대한주택토지공사 이사)씨 부친상, 김정훈(하나은행 반포지점장)·손남수(사업)씨 장인상 =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02-3410-6915

◆오우라(승실대 입학처장)씨 부친상 = 1일, 일산백병원, 발인 3일, 031-902-4444

◆이용기(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흥경기 운영팀 차장)씨 부친상 = 1일, 전주 삼성강래문화회, 발인 3일, 063-247-1003

◆정용원(전 이대부속중고교 교사)씨 별세, 재현(한국전력기술 근무)씨 부친상, 이광열(삼성전자 차장)·이종민(LG CNS 과장)·손강훈(현대중공업 과장)씨 장인상, 정승환(전 남양유업 상무)·경환(한국교통대 교수)씨 형님상 = 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02-3410-6901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CEO 목표 끝까지 가져라”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

“회사가 입사할 때 가졌던 최고경영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끝까지 가져라.” 지난달 28일 서울 광장동 워커히에서 열린 ‘CEO와의 대화’에서 2017년도 신입사원들과 만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함께 치러진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 행사에서 신입사원들은 두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인 ‘SK이노베이션의 10년 후 성장 전략’과 ‘고객기치 제고를 위한 제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성장 토크’라는 형식을 빌려 1시간가량의 경영진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괄사장은 신입사원들에게 “혁신은 새로운 물에서 시작된다” “신입사원이 가진 패기와 끈기를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변화는 새로움에서 시작



김준(왼쪽)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광장동 워커히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식 행사에서 한 신입사원에게 회사 배지를 달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되고, 그 변화를 즐기면 혁신이 된다”며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한계를 돌파해 내는 경험을 축적하면 결국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사장은 “100명의 신입사원 모두가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회사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오바마 부부 자서전, 판권료 735억 ‘역대 최고’

美출판사 펄컨랜덤하우스 계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인기가 퇴임 이후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 출판사 펄컨랜덤하우스가 오바마와 부인 미셸 여사가 각각 집필하는 자서전 두 권에 6500만 달러(약 735억 원) 이상을 불러 전 세계 판권을 획득했다고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부부 자서전 출판사를 경매로 정했다. 펄컨랜덤하우스는 물론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 산하 하퍼콜린스와 CBS의 사이먼&슈스터 등이 경매에 뛰어 들었다. 펄컨랜덤하우스는 구체적으로 판권료를 얼마나 주는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정에 정당한 소식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AP뉴스

통은 6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NBC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가 역대 미국 대통령 자서전 판권료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가정경영연구소장

우리 동네 가꾸기

양평의 연구소로 출근하기 편한 고덕으로 이사를 했다. 딸아이가 결혼해서 분가를 했고, 몇 년 안으로 아들도 짝을 만날 것 같아 집을 출여서 옮겼다. 짐 정리 대충 끝난 뒤,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주민센터, 마트, 체육관, 도서관 등을 둘러보았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모임, 학습 동아리가 있고 토요일마다 영화도 보여주며 신문과 잡지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고덕 평생학습관은 훌륭한 놀이터였다. 백반 4000원, 떡볶이불고기 4800원, 라면 2500원, 돈가스 4500원... 먹어보지 않아 맛은 담보할 수 없지만 구내식당의 차림표가 눈길을 끌었다.

을이나 교육공동체 마을, 귀농·귀촌 마을에서 삶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람들도 참 융감해 보인다. 그런가 하면 시집 전문 서점이나 아동 도서 전문 서점, 고양이 책방, 밥에는 바(bar)로 변신하는 서점 등 동네 서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각종 독서 모임이나 소모임, 작가의 강연, 세미나, 전시회,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네 서점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동네 서점의 책을 사 주고, 주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대출받아 반납하면 도서관에 자동으로 그 책을 등록해주는 제도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각종 운동과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과 주민센터도 만족스럽고 아파트 단지 안의 헬스장과 사우나도 마음에 쏙 들었다. 아내와 맛있는 정국장집과 추억집, 아귀찜집도 개발하고 산책 코스도 발견했다. 같은 강동구에 사시는 장모님 덕 바로 옆 전통시장도 삶의 활기를 느끼게 하는 보물이다. 동네 탁구장에도 등록해 개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먼저 다가가 안내를 해주는 주민들의 친절이 따뜻하다. 이를 전에는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율라 리사들이 있어 강동아트센터 찾았다. 우리 동네에 이런 훌륭한 공연장이 있었다니 감탄스러웠다.

재산이라고 하면 흔히 돈이나 집, 자동차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동네의 모든 문화·체육 시설, 공원, 교량, 지하철역, 편의 시설이 모두 다 우리 '가족자원'이다. 한 톨이라도 더 벌여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사려고 아등바등할 일이 아니다. 동네 주변의 훌륭한 자원이나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돈 버는 지름길이다. 아파트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줌과, 공동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 양보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다. 내가 낸 세금이 줄줄 새는 현상이나 뉴스를 보면 화가 나다가도 이런 복지를 누리면 세금 낸 보람이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마을 공동체 가꾸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나치게 서울 중심, 대도시 중심이었던 생활문화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고 즐기자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 반갑다. 동네 주민들이 연극 공연을 하고 밴드나 합창단을 결성해 발표회도 열면서 또 다른 삶을 창조해가는 모습들이 건강하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독특한 색깔과 향기로 가꾼 동네 문화는 확립된 상업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육아공동체 마

이제 노후에도 여가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그 무엇'을 발견했으니 동네에 있는 가게들을 더 자주 이용하고 즐기며 나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아이들이 자주 안 찾아온다고 서운해질 필요도 없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떨어졌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동네에서 삶의 즐거움과 건강을 찾고 이웃과 서로 나누며 보람을 느끼는, 우리 부부의 노후를 그려보며 잠시 행복해졌다.

미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스타들, 왜 대통령과 싸울까

라!”(래퍼 비스타 라임스) “지금이야말로 아티스트들이 움직일 때다.”(가수 제니퍼 로페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뭉쳐야 살 수 있다.”(배우 제임스 코든) 12일 개최된 제59회 그래미상 시상식 역시 스타들의 반트럼프 구호와 비판으로 물들었다.

연기파 배우 메릴 스트립은 1월 9일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권력자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것이다”라고 트럼프에 일갈했고, 할리우드 스타 조디 포스터는 24일 베벌리 힐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저항하고 해답을 구할 때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항의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할리우드 스타와 배우, 가수들의 비판 맹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스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는 할리우드 스타와 가수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에 온몸으로 저항할까.

영국 워릭대학교 리처드 다이어 교수가 강조하듯 스타와 연예인은 기존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위협받는 선의와 가치를 체현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타와 예술인은 시대 변화에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로 '침수함 속 도끼'처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 버리고 부패, 불합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 때문에 고스라리 위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사회의 위기를 경고한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인종차별 행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선 강화, 환경과 복지 정책 후퇴, 반인권적 언행, 언론자유 침해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건전한 미국 사회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스타는 지식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자이

며 대중을 선도하는 자”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스타들의 비판은 수많은 대중을 반트럼프 대열에 합류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는 할리우드 스타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과장과 허언의 반격이 뒤따르지만, 다수의 국민은 스타들의 비판이 건전한 미국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신뢰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연예인과 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차별하고 탄압한 박근혜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부패와 비리, 불합리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스타와 예술인의 우리 사회 위기와 문제에 대한 경고와 비판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배제와 탄압을 했기에 수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고 간 국정 마비가 조래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위기에 처한 게 아니었는가.



독립(獨立)과 광복(光復)

어제는 삼일절(三一節·3·1절)이었다. 1919년 3월 1일, 당시 대한제국의 백성인 한민족은 일본의 강제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이미 '대한'이라는 국호가 우리의 국호임을 확인하였고, 이어 1919년 4월 13일에는 과거 대한제국의 '제국(帝國)' 대신 '민국(民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나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주공화정부인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만전하여 천명하였다. 따라서,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또한 공식적인 국가기념일이다.

그러나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항일 시기에 독립을 위해 투쟁한 것은 사실이나 그 투쟁의 결과로 얻은 것은 '광복'이기 때문에 '광복기념관'이라고 해야 옳다.

마치 세월호가 막 침몰하던 그때에는 인명 '구출'이 절대적인 목표였지만 훗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날의 비극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건물을 세운다면 당연히 세월호의 비극을 상기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의 건물이 되어야지 '구출을 강조

하여 '인명구출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게다가 우리가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1945년 광복 이전 우리의 모든 역사는 누군가에게 얽매어 있던 예측의 역사가 되고 만다.

중국어사전 중 가장 방대한 규모인 '중문대사전'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韓(韓)'에 대해 "1897년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호를 '한국'으로 고쳤다"는 풀이를 하고 있다. 질박하게 독립을 외치던 그날들은 기억하되 1945년 광복된 그날을 기념하는 건물은 응당 '광복기념관'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도사리고 있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카드로 보는 세상



여행 좋아하시나요? 그렇지만 큰맘 먹고 떠나야 하는 현실에 얽매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돈도 벌며 좋아하는 여행도 실컷 할 수 있는 직업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비행 승무원이나 여행 가이드는 물론, 패션 디자이너, 사진가, 요리사, 통역사, 크루즈 직원 등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참, 많은 곳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는 전문 블로거도 여행과 밀접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ITBfdE>

온라인 토닥토닥

송혜교·서경덕, 日 도쿄서 한국 역사유적 안내서 배포 “진정한 애국”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삼일절을 맞아 일본 도쿄에서 한국 역사 유적지 안내서를 배포했다.

1일 서경덕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송혜교와 서 교수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도쿄편' 안내서 1만 부를 도쿄 전역에 뿌렸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제작된 이 안내서는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 이봉창 의사 투탄 의거지 및 순국지,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지 등 도쿄 내 한국 역사 유적지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지금까지

지 두 사람은 중국 충칭 및 항저우 임시정부청사, 상하이 운봉길 기념관, LA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 등 12곳에 안내서를 꾸준히 기증해 왔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토론토 박물관 등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해왔다.

네티즌은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속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ly0403@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정승호의 키워드 - 의충법

나는 무슨 벌레가 돼가는 걸까



연론인 전 코스카저널 논설주간

'인인법(擬人法)'과 '의충법(擬蟲法)'이 넘쳐난다. 먼저, '인인법의 범람'. '대세 아이돌 걸 그룹' 엠버 하나가 강아지를 데리고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성격이 어떠냐고 묻는 MC(여자)에게 "애는 귀엽지만 앙칼져요. 낫도 엄정 가려요"라고 대답한다. MC가 "예쁘다"고 하자 "애, 이모가 너 예쁘단다"라며 쓰다듬는다. MC는 개 이모가 된 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상한가? "전에 데리고 나온 애는 어디 있어요? 개도 예뻐했는데..." "아 개요? 아파서 두고 왔어요. 속상해요." 개 이야기를 하면서 MC나 출연자나 똑같이 개를 '애', '재', '개'라고 부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취급이다. 한 번도 '이놈', '저놈', '그놈'이라고 하지 않는다. '수놈', '암놈'도 없고, '남자', '여자'만 있다.

"애는 남자만 오면 꼬리를 치는데, 여자여서 그런가 봐요"는 '이놈은 암놈이어서 남자(사람)를 보면 꼬리를 친다'라는 뜻이다. 개는 물론, 고양이, 돼지, 뱀, 이구아나, 햄스터, 앵무새 등등 모든 애완동물이 사람 대접을 받더니 자동차, 옷, 구두 따위도 인칭대명사를 댈어준다. 자동차에는 "애는 연비가 좋아요. 힘도 넘쳐요", 옷에는 "재는 신축성과 보온성이 높아요", 구두에는 "개는 완전 신상이잖아요, 트렌디하고..."라고 말한다. '이것', '저것', '그것'은 사라졌다.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무, 파, 고기 따위 재료를 늘어놓고는 "물이 끓으면 애 먼저 넣고, 살짝 익었다 싶으면 다음엔 재를 넣으시고, 마지막에 깨네들을 다 넣으세요"라고 시킨다. 의충법 사용만 많아진 게 아니다. 의충법도 부쩍 늘어났다. 나의 다른 글에서 이미 소개한 게 많아 멋쩍지만, 의충법 사례 몇 가지를 옮겨 본다. 맘충 -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급식충 - 학교에서 급식 시간만 기다리는 아이.

진지충 - 온갖 일에 진지하게 나서는 사람. 극혐충 - 극도로 미운 사람. 설명충 - 온갖 일을 설명하고 나서는 사람. 진지충과 DNA가 거의 겹친다. 일베충 - 극우 보수적 사이트인 일간베스트를 근거로 활동하는 사람. 자기 글에서 틀린 걸 애써 고쳐 수준



고양이 애네들은 주인, 아니 집사를 우습게 아는 것 같다.

높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교정충' 혹은 '뎀뎀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의충법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벌레로 간주하는 표현법이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행위-움거나 크르거나 상관없이 '벌레 충(蟲)' 자만 붙이면 의충법

은 완성된다. 사람과 벌레의 구분은 오직 자기 기준, 자기 눈에 보인 것을 따른다. 요즘 새로 나타난 벌레는 '틀딱충'이다. '딱딱거리며 잔소리하는 틀니 낀 노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태극기 집회가 거듭되면서 거기 참여하는 노인들을 이렇게 부르는 젊은 것들이 많다. 일베충이 진화해 틀딱충이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노인들은 조어 능력이 떨어져 반대편 젊은 이들을 '충'이라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애비 어미도 모르는 짐승 같은 것들"이라고 맞설 뿐이다. '벌레들의 싸움'이 안된 게 그나마 다행인가. 이게 모두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인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 다른 느낌이면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벌레 충'이고, 짐승 같은 것들이다. 하여튼,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웬만큼 관심 갖고 아끼는 것은 사람 취급하고, 그게 아니면 개, 돼지, 자동차, 옷 만큼도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글 쓰고 있는 나도 벌레가 되어 있을까? 무슨 충일까? 틀니가 없어도 틀딱충이겠지. 어쨌든 틀니 나면 딱딱거리고 있으니까!

장효진의 이슈툰 기업금융부 차장



은산분리 족쇄 찬 인터넷전문은행

25년 만에 새로운 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달 중 문을 연다. 금융당국은 은행 시장의 '메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산분리'의 족쇄를 찬 상태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 중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하는 곳은 케이(K)뱅크이다. 이어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내에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세운 것은 '혁신성'과 '편의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우선 영업점이 없다. 연중무휴 24시간 모든 은행 거래를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절감한 영업점 운영 비용은 금융 소비자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업계 최저 수준의 대출금리와 최고 수준의 수신금리를 호언장담하는 근거이다. 케이뱅크는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활용해 보안 인증, 계좌 개설, 대출,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 협력업체들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TV를 시청하면서 자금 이체, 홈쇼핑 간편 결제 등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공과금 수납은 물론 메신저 대화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상당수 잠재고객을 확보했다. 케이뱅크는 KT의 유무선 전화, IPTV 가입자 등 3000만 명이 서비스 대상이다. 카카오뱅크는 3800만 명이 넘는 카카오톡 가입자가 기반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와 정보통신기술(CT) 기업의 합작품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 은행들도 '디지털 금융'을 전면에 내걸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먼저 모바일뱅크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간편 송금이나 환전 등 금융 거래를 비롯해 통합 멤버십을 통한 부가 서비스까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창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반부터 열세에 몰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대를 거는 것은 중금리 대출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4~7등급 신용평가자료를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 대비 3~5%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문제는 대출 업무에 필수적인 자본 확충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려는 은행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증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케이뱅크는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다. 케이뱅크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초기에 원활한 대출 영업을 하려면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인터넷전문은행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js62@

객석

이윤경 ING생명 반포지점 파이낸셜 컨설턴트



당신에겐 자산관리사가 있습니까

나는 지난 10년간 금융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다. '부자들의 금융주치의'로 불리는 웰스매니저(Wealth Manager)들을 만나 자산가들의 돈 관리법, 투자법 등을 듣고 글로 옮겼다. 그러다 직접 경험이 아닌 현장에서 실무를 배워 보고 싶었다. 자산관리사로 전업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재무적 고민을 듣고 상담을 진행했다. 급여 생활자, 자영업자, 법인 운영자, 임대소득자 등 직업과 자산 규모도 천차만별이었다. 그중에서도 주 고객인 젊은 직장인들을 만나며 느낀 바가 컸다. 그들은 재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는 달리 금융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무척 낮았다. 부자들은 금융권의 프라이빗뱅킹(PB)이나 웰스매니저먼트(WM) 서비스를 통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절세 노하우를 익히고 포트폴리오에 따른 분산 투자를 하며 부를 지속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공부한다. 그들의 곁에는 자산관리를 돕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

한데, 각종 금융 정보와 자산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은 오히려 부자가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안해보다 금융 지식 수준이 낮다는 한국의 주부들, 유리지갑을 품은 채 살아가는 직장인들 말이다. 자산관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생각부터가 잘못됐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 금융이 어렵다고 외면하는 것도 이중적이다. '부의 추월차선'을 쓴 미국의 백만장자 엠제이 드마코(MJ DeMarco)는 자산가가 되기 위해 '재무적 문맹'이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재무적 지식으로 무장하라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찾아 발품을 팔고 은행, 증권, 보험, 세금, 부동산 등 무엇이든 재테크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산관리사를 옆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산관리는 필수불가결하다.

기자수첩

곽도훈 정치경제부/sogood@



정부 부처 개편이 중요한 이유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순실 씨 사업이 집중된 미래창조과학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해체가 지 거론된다. 부처 개편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나 필요성을 중심으로 나눌 수 없다. 이번 논란이 되는 바다모래 채취 문제도 알고 보면 잘못된 부처 개편의 희생양이었다. 바다모래를 처음 채취한 시기는 2008년이었다. 당시 부산신항을 건설하면서 모래가 부족하자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 바다모래 채취 단지를 지정해 해결했다. 문제는 부산신항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바다모래 채취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에는 국책용으로만 허가를 내줬지만 민수용으로 확대됐다. 허가가 4차례 연장되는 동안 8년간 바다모래 채취량은 1만여 배 늘어났다. 왜 바다모래 채취가 이제서야 논란이 됐을까. 이유는 부처 개편에 있었다. 바다

모래 채취가 시작된 2008년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져 국토해양부가 됐다. 그런데 당시 해양수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밀려 찬밥 대접을 받았다. 건설사 CEO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힘을 실어 준 반면, 환경이나 어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모래는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골재의 절반이 넘는 비중까지 차지하게 됐다. 남해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돼야 할 이유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고등어'를 들 수 있다. 고등어 치어가 바다모래 채취 해역 인근을 지나간다. 이 외에 환경 피해도 심각하다. 일본도 최근에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크게 줄이고 있다. 잘못된 부처 개편의 대표적인 예가 바다모래다. 향후 새 정부도 정부부처 개편을 할 때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최순실 사태로 청초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8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철수 광고문의 (02)799-2601 / 28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Advertisement for books '사람이 고향이다' by Seonmin-hui and '보석을 찾는 마음' by Isukyeong. Includes book covers, author photos, and promotional text.

수영장·텃밭 있는 직장 어린이집... 육아전쟁 '최고의 방패'

W 기획 여성친화 기업을 찾아
14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국내 대표 생명보험회사로 1958년 설립된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가 전신이다. 세계 처음으로 교육과 보험을 접목한 교육보험을 시장에 내놓았고, 교육열이 높은 국내 정서와 맞물려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 국내 최초로 퇴직적립보험과 암보험을 개발하고, 계약자 배당시대를 여는 등 한국 보험시장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사명은 1995년부터 사용했다. 2011년 '고객보장을 최고로 잘하는 보험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생명보험사로서 업무의 본질인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족사랑은 직원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경영방침 아래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다양한 제도과 정책을 시행 중이다. 탄력적 점심시간, 가족사랑 실천의 날, 자율복장 근무의 날, 반일 휴가, 출산전후 유급휴가, 유사산(流死産) 유급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을 2008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디앤아이(Diversity & Inclusion, 이하 D&I)의 가치를 실현할 조직을 만들어 여성 직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교보생명본사 2층에는 '안식처', '쉼터'라는 의미를 가진 레스토랑 '라브리(L'Abri)'가 있다. 기자가 찾은 당일 이곳에선 D&I 회의가 한창이었다. D&I는 서로 다른 개개인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허금주 상무를 중심으로 총 9명의 멤버가 운영진으로 참여해 조직의 혁신



교보생명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음악교실 수업에 참여해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교보생명

탄력 점심시간·자율복장·반일휴가... 다양성과 포용성 'D&I' 실행 조직 여직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과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태영 차장은 "운영위원 모두 열정이 대단하다. 업무 외적으로 개인시간을 투자해 D&I 내 각자 맡은 일을 해낸다. 운영진의 성비도 균형을 맞췄다. 남녀 서로의 관점을 바꿔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본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직장어린이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

역사박물관 옆 골목을 따라 쪽 올라가면 나무로 된 외관이 돋보이는 교보생명 다솜이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1월 만들어졌다. 직장 어린이집은 교보생명 조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복지제도로 꼽힌다.

친환경 시설과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덕에 직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원생이 늘고 있다. 이제 입학하려면 대기순번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 현재 3~7세 아이 41명과 11명의 선생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강문형 교보생명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대리는 "어린이집 위치와 공간은 아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이라며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이 워킹맘에게는 최고의 '방패'를 갖게 해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터뷰 양진호 교보생명 인사팀장

소개팅부터 출산까지 '신바람' 나게~ "직원 웃게 해야 회사도 고객도 웃죠"

'가족사랑' 경영모토로 일·가정 양립 힘써 '유사산 유급휴가제' 업계서 벤치마킹도



양진호 교보생명 인사팀장이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양 팀장은 직원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주변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2007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시행,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조직문화가 형성되고 뿌리내리기까지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가족사랑이라는 경영모토를 가지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고,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생명보험업의 본질에는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이 내포돼 있다. 직원부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주변 사람에게 실천할 수 있다."

양진호 교보생명 인사팀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에 남다른 자부심을 내비쳤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7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 덕에 2008년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고, 같은 해 5월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 인증기간을 4년 연속 연장하는 등 국내 대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조직에 만족한 직원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이익을 낳는다는 생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가 강해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제도를 만들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니즈(수요)조사를 시행했고, 조직원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했다."

조직원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통한 니즈 분석과 제도 수립으로 제도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었고, 그만큼 조직원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게 양 팀장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 전 10일간 유급휴가와 유사산 시 5일 휴가다.

"여성조직원을 배려한 제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신정재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남다르다. 출산휴가 3개월(90일)과 출산 전 유급휴가·연차 등을 포함하면 통상 1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업계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다." 양 팀장은 기억에 남는 독특한 제도나 이벤트를

로 '커플매니징' 행사를 꼽았다. 일명 단체미팅이다. 교보생명의 미혼 사원들에게 간단한 이성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자 타 기업 미혼 사원과 만남의 기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2011년에는 국립중앙의료원, 2013년에는 동아약품과 함께했다.

"직원들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보니 데이트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다. 보험 산업은 인지산업인 데다 페이퍼워크(서류작업)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이라면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다 싶어 단체미팅을 추진했다. 각 100명씩 희망직원을 받아 진행했는데, 신청이 폭주했다. 이 행사를 통해 맺어진 한 커플은 결혼까지 성사됐고, 지금도 열심히 근무 중이다. 요즘도 가끔 커플매니징 행사 계획을 묻는 연락을 받기도 한다(웃음)"

교보생명은 남성육아휴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최초 남성육아휴직자가 나왔으며, 최근 3년간 10명이 사용했다가 100% 복직했다. 양 팀장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부모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도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허금주 상무가 말하는 'D&I'의 가치는...



△교보생명의 디앤아이(D&I)란 무엇인가.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수용하면서 포용하는 조직의 문화를 말한다. 나는 기업들이 D&I를 통해 조직원에게 소속감과 정의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보생명의 D&I는 2012년 파일럿으로 시작했다. 다양한 직급과 직무를 가진 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멘토링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원들의 성장을 돕고자 했다"

△D&I의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운영방식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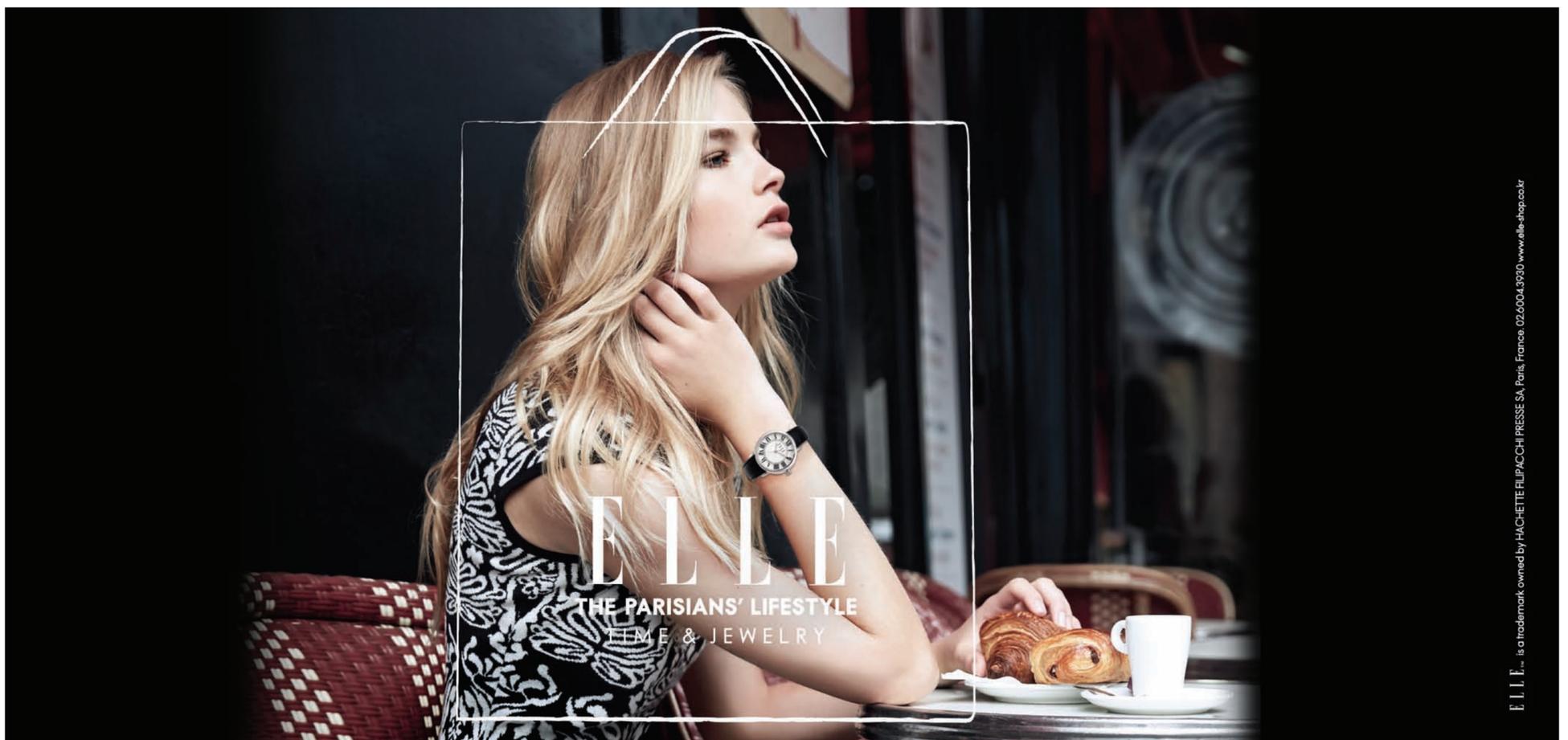
"현재 두 개의 위원회(KWICK·KING)는 공통적으로 정기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1회 활동을 정리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작한다. 멘토링 주제는 남녀 공통으로 많이 다루는 주제들로 구성된다. 주로 경력개발과 스트레스 관리, 일과 가정의 균형, 역량개발 등이다. 위원회가 각자 따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KWICK은 연 1회 우먼 포퍼런스를 개최해 서로 고민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D&I를 이끄는 회장으로서 그간 느낀 소회는.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들이 계속근

로를 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려면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멘토링과 코칭을 통해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여성인력 육성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이유가 있다면.

"임원 41명 중 여성은 2명이다. 1990년 교보생명에 입사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조직 내에서 여성 선배나 멘토가 없었다.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후배들에게 내가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 여성이 조직에 정착하도록 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회사 신뢰와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김민정 기자 mj_kim@



JANDIRO

잔디로 키높이 구두 - 센티업!

키높이 구두에 최적화된 자체개발 특수 라스트를 적용하여
앞쓸림 없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불만족시
교환·환불
보장

잔디로닷컴
회원가입 5천원
적립금 지급



국내 생산, 천연가죽 사용
웨딩, 신사화, 컴포트화, 골프화 등
키높이 맞춤형 - 센티업



5.5cm 키높이 수제화
품번: **DM 8765** (블랙, 브라운)
※ 판매가: ₩ **89,000**원



5.5cm 키높이: **DM 8762** (블랙/브라운)



5.5cm 키높이: **DM 8761** (블랙/브라운)



5.5cm 키높이: **DM 8763** (블랙/브라운)



5.5cm 키높이: **DM 8764** (블랙/브라운)

2017 국민 컴포트화 잔디로 스파이커즈

국내생산, 천연가죽 갑피, 라텍스 향균인솔, 골프겸용 스파이크리스창 사용

회원
추가할인
5천원

※ 잔디로닷컴 회원가입 후 구매고객 5천원
추가할인 적립금 지급.
※ 판매가격: ₩167,000원 → ₩117,000원



SM 5701-02



SM 5704-08



SM 5702-47



SM 57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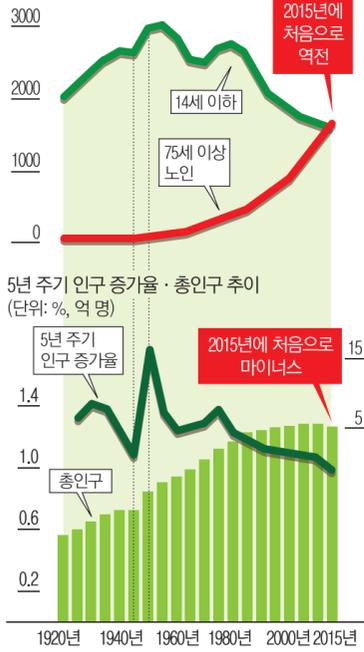
인터넷구매: www.jandiro.com — 제품문의: 02)2690-9000 — A/S 문의: 02)542-2000

서울역점 02)6959-4900 목동점 02)2608-7400 강남점 02)562-0009 전주점 063)276-5000 광주점 062)351-9000

‘인구 절벽’ 위기 맞은 日... 직장인에게 휴식을 許하라

일본 인구 변화 추이

14세 이하와 75세 이상 노인 인구 추이 (단위: 만 명)



일본 ‘일하는 방식’ 바꾼다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 이상 유지’
2차 아베노믹스 핵심 목표로 개혁 돌입
여가 늘리고 출산 후에도 직장 포기않게
야근 전담제 도입...탄력근무제 극대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 위기에 몰린 일본이 ‘일하는 방식’ 개혁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

일본은 그동안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여성인력 확보 등 생산 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과제가 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근무 방식은 오히려 전체 경제에 해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근무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성들이 육아나 직장 둘 중의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남성들도 일에 매달리다 보면 여가활동 등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져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과로사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데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

한 이유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확정치에 따르면 총인구는 약 1억2710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96만 명 줄었다. 이 가운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5년 전보다 474만 명 줄어든 7628만 명을 기록했고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6.6%에 달했다. 일본 인구가 줄어든 것은 총무성이 19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12만 명으로 전체 인구 8명 중 1명 꼴이었으며 특히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1588만 명을 웃돌았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일본이 인구 절벽에 직면한 것이다.

인구 절벽 여파는 경제 전반과 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0%로, 시장 전망인 1.1%에 못 미쳤다. 지난해 일본 백화점 매출은 전년보다 3.2% 감소한 5조9780억 엔(약 60조 원)으로, 1980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6조 엔을 밑돌았다.

지난해 실업률은 3.1%로, 6년째 하락하며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임금이 많이 쪼서 근로자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 1인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서 일하다 불법 잔업 압박에 자살한 신입사원 다카하시 미쓰리의 어머니 다카하시 유키미(오른쪽) 씨가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간) 변호사와 함께 딸의 사진을 들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당 월급총액지수(2010년을 100으로 기준)는 1997년 113.6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2015년에는 99.0까지 떨어졌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의 16.3%에서 2015년에 30.5%로 2배 가까이 커져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인식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인구 고령화 대처를 위해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 명 이상을 유지하는 ‘1억 총활약 사회’를 2차 아베노믹스의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아베는 지난 2015년 장관급의 ‘1억 총활약 담당자’를 신설하고 자신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를 앉혔고 지난해 8월 개각 때는 추가로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자’를 새롭게 만들어 가토가 겸임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과로사로 이어진 야근 관행을 없애고자 올해 1월부터 사원에게 장시간 노동은 시키는 악질기업 공표 기준을 월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서 80시간으로 낮췄다.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에 신입 여직원이 자살한 일본 최대 광고업체 덴쓰는 이시가 다다시 최고경영자(CEO)가 올 초 사임하는 등 기업계에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도요타는 올해부터 야근 전담제를 도입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13년 육아 때문에 야근이 어려운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오전 6시부터 근무하는 주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야근 전담제도 시행하는 것이다. 미쓰비시부동산은 올해 후반 이전하는 새 분사 공간의 3분의 1을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라운지 형태로 만든다.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인단체연합회(케이단련), 일본백화점협회 등은 탄력근무제를 극대화해 야에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일하고 조기에 퇴근자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지난달 첫 실시

“오후 3시 퇴근... 쇼핑하고 가족과 소풍”

도쿄타워 3-6시 방문객 할인 등 이벤트
30대 기업 10%만 참여... 정착엔 시간

일본 정부와 재계가 소비진작과 탄력근무제 도입 촉진 등의 일환으로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을 권장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지난 달 2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에 근로자들이 쇼핑과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했다. 반면 아직도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광하는 자세를 보여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얼마나 진전될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지난달 24일 보도에 따르면 고급주택 건설업체 다이와하우스 공업은 이날 두 개 본사가 있는 오사카와 도쿄에서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명이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했다.

한 다이와하우스 직원은 “백화점에 화장품을 사러 간다. 주말은 혼잡하기 때문에 모처럼 천천히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인근 온천 방문 등 주말 여행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친구와의 식사, 가족과의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을 만끽했다. 도쿄타워에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한 온천은 오후 3-6시 방문객에게 식사와 목욕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마케팅도 일어났다. SMBC 닛코증권은 보고서에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일본 소비를 연간 635억 엔(약 6400억 원) 끌어올릴



일본 도쿄에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첫 시행을 맞아 열린 한 이벤트에 직장인들이 참가해 건배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정착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새 제도 도입을 꺼렸다. 또 경제단체연합회(케이단련)가 주도한 수도권과 달리 개별 기업 판단에 맡긴 오사카 등 관서 지방에서는 대기업들도 관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닛케이 조사에 따르면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중견업 수 상위 30대 기업 가운데 이날 다이와하우스처럼 조기 퇴근을 실시한 곳은 10%에 그쳤다. 오사카 소재 중소기업 가이오카타의 가호쿠 이치로 사장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납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요코하마市, 공무원이 근무시간 직접 정해

올 6-9월 탄력근무제 시범 도입 운영
소프트뱅크, 재택근무 횟수 늘리기로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최대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과 관공서들이 ‘탄력근무제(Flex Time-플렉스타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 시는 올해 6-9월 시청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직접 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시험 도입한다.

핵심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4시)은 유지되되 상황별로 총 11개 패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입 목적은 공무원들이 육아나 간병을 하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15분으로 근무시간이 고정됐던 것과 달리 새 제도에서는 오후 4시에 퇴근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거나 보육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다.

시청 본청과 2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약 800명이 새 제도를 시험하게 된다.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는 더 나아가 오는 4월부터 약 1만 명의 현재의 탄력근무제에서 아예 ‘핵심 근무시간’도 폐지한 슈퍼 플렉스타임을 도입하며 육아와 부모 간병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적용했던 재택근무도 가능한 횟수와 대상 직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스마트&펀(Smart & Fun)”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전 직원이 즐겁고 영리하게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 인사제도 도입은 그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산자동차는 지난달 22일 생산자를 제외한 약 1만4000명 직원이 관련 일제로 새롭게 추진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닛산은 “1994년부터 직원 대부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중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적용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1903호(2016.04.07~2017.04.05)

K-CSBI
Korea Customer Surprise Brand Index
고객감동브랜드지수 1위

고객감동브랜드지수 4년 연속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스마트폰 MTS 부문 1위, 2016.04.20

SK증권 ‘주파수’

스마트한 주식 파수꾼

주파수 株把守

주파수는 주식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뜻으로 SK증권의 대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주파수’로 모이고, ‘주파수’로 통한다!
2013, 2014,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앞서가는 고객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행복파트너 SK증권
고객센터 | 1599-8245

미국인 43% 사무실 밖 근무 경험... 만족도·생산성 UP!

세계는 지금 '탄력근무' 중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주도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섰지만, 서구 기업들에 탄력근무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더는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다. 몇 년 전부터 탄력근무제는 대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나의 큰 흐름이 된 탄력근무제는 단순히 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넘어서 기업에도 이점으로 작용한다.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 여론조사업체 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이 회사 안이 아닌 밖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메리칸워크플레이스 설문조사에 참여한 1500명의 성인 중 43%가 지난 1년간 사무실 밖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3%의 근로자 중 31%는 일주일에 4-5일 이상 사무실 밖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2년 24%에서 7%가량 급증한 것이다. 갤럽은 보고서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취업정보사이트 플렉스잡스의 브리에 레이놀즈 전문가는 지난 2년 동안 정규직에서 시간제 및 임시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플렉스잡스 측은 지난 2년간 재택근무 관련 업무가 52% 늘었다고 분석했다.

◇업무 성과 높여 기업에도 좋다 =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직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미네소타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의 일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고 직원 만족도는 높아진다. 해당 연구는 생산성은 측정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의 행복과 높은 성과를 낸다고 밝혀졌다. 예컨대 지나친 업무로 인한 '번 아웃(burn out)' 현상은 더

많은 결근을 낳는다는 설명이다. 또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업무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스스로 정하는 직원들이 그렇지 못한 직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소타대학교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공동으로 STAR(Support, Transform, Achieve, Results) 프로그램을 실시해 연구했다. 1년 동안 연구자들은 포천 선정 500대 기업에서 850명을 뽑아서 실험했다. 850명 중 절반은

근로자 스트레스·심리적 고통 줄여 탄력근무 기업 근로환경 개선 효과 직원-조직 간 신뢰 쌓으며 이직률↓

재택근무 업무도 2년 새 52% 늘어 텔 "2020년 직원 절반이 원격근무" 과거방식 넘어 원격근무 증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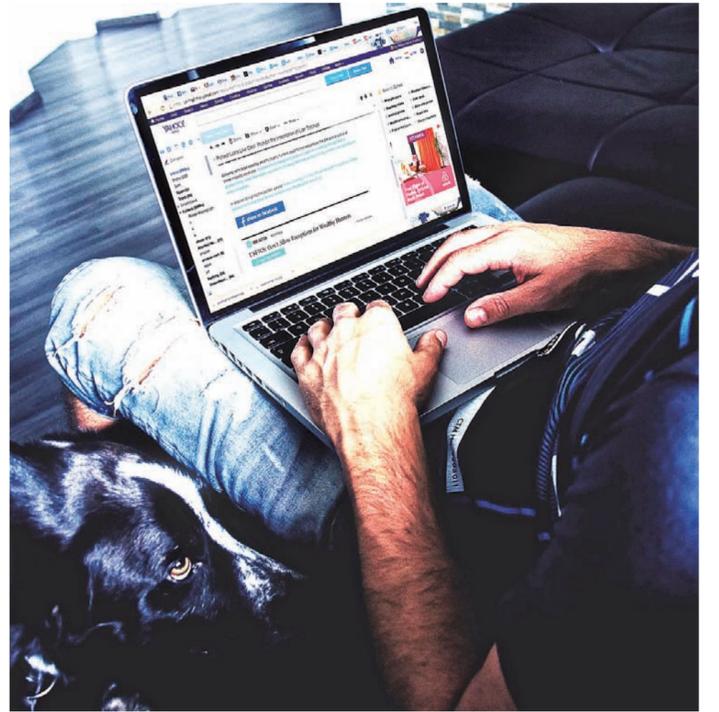
주당 45-50시간 일하면서 오직 사무실에서 일하게 했다. 나머지 절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후자 그룹에 속한 직원들은 상사와 논의해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일정을 조율했다.

결과적으로 STAR 프로그램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한 후자 그룹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일하지 않았고 업무의 질도 떨어지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건강해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미네소타대학 연구원이자 사회학자인 필리스 모엔은 "탄력근무를 한 직원들은 휴식을 허락할 필요가 없다"며 "언제 어떻게 일을 끝내야 하는

지 정하는 것은 성인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1000개가 넘는 비즈니스 그룹을 7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그룹에서 이직률이 낮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개인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직원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직원과 조직 간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SCMP는 탄력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채용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기업이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원격근무 더 늘어날 것 =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 전통적인 업무 방식에서 눈을 돌리면서 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근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플렉스잡스의 사라 서튼 벨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탄력근무제를 채택한 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택근무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근로 형태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에 이미 노동 인구에서 밀레니엄 세대(1980-2000년 태생)가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를 넘어섰다"며 "앞으로 유입된 근로자들은 정형화된 업무 환경을 거부하고 유연한 작업 환경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컴퓨터 제조기업인 델은 직원들에게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하도록 권장한다. 델은 2020년까지 인력의 50%가 원격 근무를 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탄력근무제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다양한 원격근무 형태를 증가시킨다.

사진제공 픽사베이

양성평등에 藥될까 毒될까

贊 "자녀양육에 융통성... 경력 지속성 높여" 反 "여성에 육아 전담되며 성 고정관념 심화"

일본은 여성을 노동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들에 탄력근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이를 둔 여성에게 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다. 양육을 해야 하는 부모에게 탄력근무제는 큰 기회일 수 있다. 자녀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출·퇴근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간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일각에서는 탄력근무제가 여성이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 양성 평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적게 일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 반박한다.

◇탄력근무제가 여성 경력 단절 막는다 = 직장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연봉이 적고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낮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녀가 생기면 대개 일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탄력근무제가 남성과 여성의 직장 내 연봉, 승진 가능성 차이를 좁힌다고 보도했다. 퓨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70%는 탄력근무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남성은 48%가 탄력근무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직 여성 둘이 창업한 채용 알선회사 워크는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취업 알선을 전문으로 한다. 이들은 페이스북, 우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근무 장소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워크를 통해 취업한 에린 플레쉬라는 여성은 비영리단체를 전문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일한다. 그는 현재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한다. 10시간은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머지 10시간은 아이가 자는 시간에 일한다. 급한 회의를 생겼을 때는 아이에게 태블릿PC를 주고 놀게 한다. 워크의 앤-마리 슬로터 이사는 "탄력근무제는 성과를 측정하기에도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근무제가 남녀 차별을 조장한다? = 반면

- 탄력근무로 시급 20달러 이상 받는 직업**
- ✓ 온라인 계정 관리자
 - ✓ 정보 보안 분석가
 - ✓ 사업 개발자
 - ✓ 간호사
 - ✓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가
 - ✓ 물리치료 보조원
 - ✓ 고객 서비스 코디네이터
 - ✓ 제품 관리자
 - ✓ 데이터 분석가
 - ✓ 통계학자
 - ✓ 재무 분석가
 - ※ 출처: 플렉스잡스

탄력근무제가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편견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랄로버트대학교의 데이비드 버커스 교수가 쓴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버커스 교수는 2014년 퍼먼대학교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가 인사과에 육아를 이유로 탄력근무를 요청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70%대 57% 비율로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즉 똑같이 탄력근무제를 요구했을 때 여성 쪽이 덜 열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셈이다. 또 같은 직무와 직급에서 탄력근무를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연간 4700유로(약 563만 원) 더 많은 수입을 받아들이었다고 조사됐다.

버커스 교수는 남성은 탄력근무제를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육아와 가족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사용한다는 편견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즉 여성이 육아가 아닌 능률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하더라도 가족을 위해 탄력근무를 한다고 여겨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탄력근무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한다. 직원의 근무 환경과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플렉스잡스의 사라 서튼 벨 최고경영자(CEO)는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첫 단계라고 조언한다. 탄력근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문제일지 모른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유쾌한 투자 유안타 증권

웃어라! 대한민국!

유안타증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범종화권 금융시장의 광활한 아시아 금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직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투자상품과 다양한 투자기회로 고객의 행복을 앞당깁니다.



IR 사이트 www.yuantakorea.com 홈페이지 www.myasset.com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거래방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제16-05682호(2016.11.2~2017.11.1)



“이중 국적자 佛서 추방”... 트럼프보다 더한 극우 포퓰리스트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

프랑스의 '우파 포퓰리스트' 마린 르펜(48) 국민전선(FN) 대표의 돌풍이 거세다. 지난해 영국에서 시작한 반(反)세계화, 자국우선주의는 미국을 돌아서 이제 르펜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한술 더 뜨는 르펜의 극우 포퓰리즘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세계화·이민, 보호무역주의 공약 프랑스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질주

경기침체·높은 실업률 극복 위해 EU 탈퇴 '프렉시트' 필요 주장도

극우민족주의자 장마리 르펜의 딸 “여성보호” 주장 女유권자에 인기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의 주요 공약

- 이민**
 - 이민자 연간 유입 80% 감축
 - 불법 이민자 의료보장 혜택 중단
 - 이중 국적자, 프랑스 국적 박탈한 뒤 추방
- 무역**
 - EU 탈퇴 국민투표 시행 프랑화 부활
 - 스마트 보호무역주의
- 일자리**
 - 외국인 근로자에 특별세 부과
 - 노동규제 철폐 및 감세로 중소기업 지원

◇프랑스판 트럼프= 국민전선 대표인 르펜은 지난해 11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하자 이번 프랑스 대선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다. 반세계화의 물결이 프랑스에서도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르펜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프랑스 다보르(La France d'abord·프랑스 우선주의)'을 내걸며 각종 극우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르펜의 공약은 크게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반이민 측면에서 트럼프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르펜의 공약이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는다고 평가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민자 신규 유입을 80% 줄여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는 프랑스 국적을 박탈한 뒤 추방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반이민 행정명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트럼프와 비슷하다. 르펜은 지난해 26일 경쟁 후보인 에마누엘 마크롱(39) 전 경제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언론들이 그들의 후보를 정했다”면서 언론이 마크롱 전 장관을 편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탄치 않았던 유년시절= 르펜은 국민전선의 창시자이자 극우민족주의자 장 마리 르펜

의 딸이다. 아버지 장 마리가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역사의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극우성향을 말해주는 유명한 일화다. 정치인 아버지를 둔 덕에 르펜의 삶은 일찍부터 프랑스 정치계에 노출돼 있었지만, 그의 사생활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만큼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는 1968년 장 마리 르펜의 세 딸 중 막내로 태어났다. 영국 일간 더 선(The Sun)에 따르면 극우 성향인 아버지 때문에 그의 나이 여덟 살 되던 해에 집이 폭탄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극우성향에 반대하는 세력의 살해 위협이 극에 달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르펜은 열일곱 살 되던 해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언론계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으며 삶의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했다. 르펜은 파리2대학에서 1991년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해 1998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민전선 당내 법무팀 일도 병행했다. 르펜은 두 차례 결혼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 두 명의 전 남편 모두 국민전선 당내 활동을 하다 만났다.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를 낳았다. 2006년 두 번째 결혼생활을 끝낸 르펜은 현재 싱글맘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싱클래프 르펜이 최초의 프랑스 여성 대통령으로서 프랑스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며 여성 유권자들 사이

에서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제2의 메이 될까= 2011년 국민전선을 창설한 장 마리 르펜으로부터 당수 자리를 이어받은 때만 해도 르펜은 ‘극우 인종차별주의자’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잇단 테러로 극우 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르펜은 반이민 정책과 반유럽 정책을 앞세워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르펜 대표는 이 여세를 몰아 4월 1차 투표를 통과해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해 대통령을 결정한다. 르펜은 프랑스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프렉시트(Frexit)’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자신이 당선되면 프렉시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본보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그는 유로존 탈퇴를 통해 엄격한 이민 제한과 스마트 보호무역주의(smart protectionism)를 펼쳐 ‘변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르펜은 유로화가 독일에서 저평가됐으나 프랑스에서는 과대평가됐다며 프랑스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유로화를 버리고 과거 자국 통화였던 프랑화를 부활시켜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르펜은 “영국 경제는 파란불 일색이다. 대혼란을 예측한 사람들은 상황을 오판했다”며 “실업률도 브렉시트 투표 이후 더 떨어졌고, 성장률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영국과는 달리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이다. 프랑스의 EU 탈퇴는 유로존 체계를 뒤흔들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금융권의 관심은 르펜 행보에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24일 UBS와 블랙록 바클레이스 등 일부 금융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르펜 참모진에 직접 접촉해 프렉시트 구상안에 대해 들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주요 정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금융회사들과 접촉해 회동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주요 정당이 아닌 국민전선으로서는 이러한 금융회사와의 접촉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금융업계가 르펜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프랑스의 다수 여론조사 결과는 르펜이 1차 투표에서 승리하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양자 대결 시 중도연대 카드를 꺼내든 마크롱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소셜미디어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투표에서 르펜이 압승을 거둘 경우 결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설마하다가 큰코다칠라... 르펜發 ‘유럽 리스크’ 긴장

마린 르펜의 급부상이 프랑스를 넘어 유럽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오는 4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인 독일 국제 수요가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2년 만기 분트(독일 국제) 금리는 마이너스(-92bp(1bp=0.0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독일 국제 수요가 치솟았다는 이야기다. 르펜의 지지율 상승세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를 사들인 것이 분트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모두 프랑스 대선 영향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독일 국제 금리가 르펜의 승리 가능성을 테일리스

지지율 상승에 안전자산 獨국채 싹뚫 테일 리스크 발생 뎀 佛국가부도 우려

크로 인식해 이에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일리스크는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최근 프랑스 채권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시과 같은 위험자산보다 채권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이 르펜의 승리를 테일리스크로 보는 더 큰 이유는 프랑스의 신용부도스와프(CDS) 때문이다. 르펜이 당선돼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진행된다면 CDS 프리미엄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CDS는 2014년 영국식으로 새롭게 재정립됐다. 이에 프랑스의 CDS는 2014년 영국식으로 재정립된 것과 기존에 프랑스 현지 방식으로 정립된 2003년으로 두 가지 버전이 공존한다. 2조 유로 규모의 프랑스 국제시장에서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가 프랑스 현지법에 맞춰 발행됐다. 만약 프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이 국채를 영국식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CDS 프리미엄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유럽 역대 2위 경제국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지는 것은 유럽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70년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비타민 전문기업 고려은단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DSM사의 영국산 비타민C 원료 독점계약 | QUALI-C 인증마크 획득 | GMP 인증! 철저한 품질관리

대한민국 1등 비타민

gold 고려은단 프리미엄 비타민C 골드 240개 (24개 x 10개) 건강기능식품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300개 (30개 x 10개) 건강기능식품

[2014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부기질부문 생산실적기준 매출액]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080-277-0006 | www.koreaeundan.com

세상이 주목한 기술
名品
COZYMA

COZYMA



하루 종일 일에 지친 몸과 마음
“시원한 발마사지로 풀어주세요”

발이 편안하면 온 몸이 건강해진다는 사실 아시죠?
이제 하루에 한번 발마사지 해보세요.
몸에 쌓인 피로는 시원하게 사르르~
다리 라인까지 슬림하고 예쁘게 만들어 드립니다.

내 발에 건강과 휴식을, 코지마 발마사지기

70년 전통의 안마기 名家,
코지마의 인체과학기술이 함께 합니다

이문정
코지마 전속모델 가수 | 장운정

NEW
파가니니 발마사지기 | CMF-250

100세부터
한정판매

프리미엄 - 파가니니 발마사지기

종아리와 발등, 발바닥, 발뒷꿈치, 오금(무릎뒤쪽)까지 손으로 주무르듯 섬세하고 시원하게 피로를 풀어 드립니다
주요기능 ▶ 5-IN-1 기능 | 롤링기능 | 3가지 자동코스 | 3단계 강도 | 온열기능 | 3가지 수동코스 |



5-IN-1 기능

종아리, 발등, 발바닥, 발뒷꿈치, 오금(무릎뒤쪽)까지 주무름마사지, 롤링마사지, 지압마사지가 가능한 프리미엄 발마사지기입니다.
종아리부분의 에어마사지는 주물러주는 방식과 비벼주는 방식을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최고의 마사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롤링지압 마사지

지압돌기가 있는 롤러가 회전, 발바닥과 발가락을 마치 손으로 주무르는 듯한 시원한 마사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부위 전체를 롤링으로 쿨어 지압해 줌으로써 발바닥을 자극하여 더욱 시원한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마사지 슬라이딩 3단계



최고급형
CMF-250
₩49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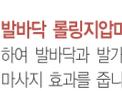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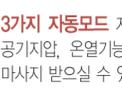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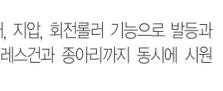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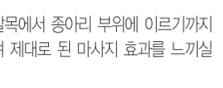


일체형 리모컨

슬림 레볼루션 - 스킨 발마사지기

종아리와 발등, 발바닥, 발뒷꿈치의 피로는 시원하게~ 강력한 에어지압과 온열기능으로 다리라인은 슬림하게~
주요기능 ▶ 온열 기능 | 4-IN-1 | 3가지 자동코스 | 롤링지압 | 에어지압 | 종아리 마사지 |

강력한 온열기능 발목에서 종아리 부위에 이르기까지 온열기능을 탑재하여 제대로 된 마사지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4-IN-1 기능 에어, 지압, 회전롤러 기능으로 발등과 발바닥은 물론, 아킬레스건과 종아리까지 동시에 시원하게 마사지합니다.



3가지 자동모드 자동마사지 3가지 코스에 롤링지압, 공기지압, 온열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어 편안하게 마사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롤링지압마사지 지압돌기가 있는 롤러가 회전하여 발바닥과 발가락을 손으로 주무르는 듯한 시원한 마사지 효과를 줍니다.

3가지 마사지 타입



일반형
CMF-620
₩348,000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 특별판매가 • 최고급형 : ~~₩680,000~~ ▶ ₩498,000(월 ₩83,000) • 일반형 : ~~₩498,000~~ ▶ ₩348,000(월 ₩58,000) ※6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www.arambi.kr

주문전화 080-210-5500

숨고르는 코스피... 3월 '전약후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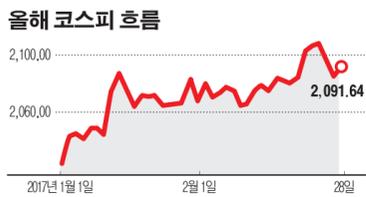
美 세계개혁안·FOMC·G20 회의...
글로벌 정치·경제 이벤트 중순에 몰려
시장 불확실성에 당분간 조정 흐름
실적 시즌 앞두고 에너지·철강·화학 주목
증시 추가 상승 랠리 가능성은 높아
전문가 예상 밴드 평균 2034~2162P

코스피 지수가 2100선 돌파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증시 전문가들은 3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이벤트의 향방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7곳의 3월 코스피 지수 등락 범위(밴드)를 집계한 결과, 예상 밴드 평균은 2034~2162포인트로 나타났다.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코스피 밴드 하단은 2000, 상단은 2200이었다.

코스피는 외국인인 '팔자'로 돌아서면서 지난달 24일 다시 2090선으로 물러났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 우려와 국내 정치 이슈 등 대내외적 변수가 겹치면서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은 3월 코스피 지수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이다 중순 이후 상승하는 '전약후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예산안·세계개혁안 발표(13일 예상), 미국 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월 코스피 예상 밴드 ※ 출처: 각 증권사

증권사	밴드	증권사	밴드
삼성증권	2020~2150	케이프투자증권	2050~2180
한국투자증권	2000~2130	부국증권	2090~2200
한화투자증권	2050~2160	유화증권	2000~2135
키움증권	2030~2180	평균	2034~2162

(FOMO) 회의(14~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담(17~18일) 등 글로벌 정치·경제 이벤트가 3월 중순에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3월 코스피는 FOMC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조정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FOMC가 3월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반복되는 상반기 경기지표 부진 등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홍 팀장은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 한국 수출

지표 개선도 증시에 상승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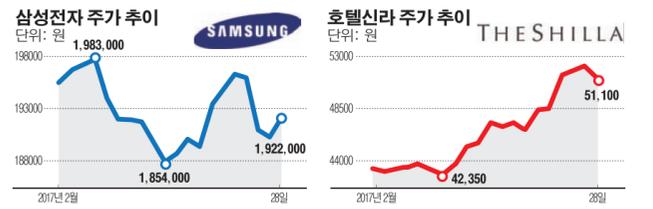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시장 충격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영교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은 예견된 수준으로, 시점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1분기(1~3월) 실적 시즌에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철강, 화학 등 이익 흐름이 양호한 업종에 주목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김성환 부국증권 연구원은 "금융 시장의 주요 리스크 지표들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글로벌 위험선호 국면을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실적 모멘텀 강화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바탕으로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 조정세 도입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개혁안과 예산안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원화의 추가 강세폭 확대 또는 약세 반전을 촉발시키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노중 유화증권 투자분석 팀장은 "현재 국내 증시는 일시적으로 코스피 2100선을 넘어섰던 2015년 4월과 같은 상황으로 2100선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정보통신(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엇갈린 흐름 보인 삼성그룹 후계株

'전자' 2.58%↓ '호텔신라' 17.88%↑
(2월 한달 추가 변화)

총수 구속 삼성전자 기대감 희석
계열사 대부분 약세 보인 가운데
'이부진 역할론' 호텔신라만 강세
승계구도 바뀔 가능성은 낮아

이재용의 삼성전자와 이부진의 호텔신라, 삼성그룹 3세 경영인이 이끄는 두 핵심 계열사가 상반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박사이클' 속에 상승장구하던 삼성전자는 2월 들어 주가가 하락한 반면, 이부진 사장이 이끄는 호텔신라는 같은 기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192만2000원을 기록했다. 1월 말 197만3000원에서 2.58% 하락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텔신라 주가는 2월 들어 17.88% 올랐다. 직전 5개월 월별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던 점에서 삼성전자와는 정반대 흐름이다.

두 회사의 엇갈린 주가 흐름은 지난달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삼성그룹 최고이사 결정권자가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 속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된 반면, 이 사장의 그룹 내 입지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부진 주식'으로 불리는

호텔신라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는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반면 호텔신라만 유독 강세를 보였다.

외신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탰다. 지난 1월 이 부회장이 특검에 출두했을 당시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의 앞날에 대해 이부진 사장이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삼성그룹 측에서는 "내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부인했음에도 호텔신라 주가를 보면 상당수 투자자들이 '이부진 역할론'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그룹의 승계구도가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보유 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사장이 그룹 1인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변세점 경쟁과 사드 갈등 등 요인을 고려하면 최근 호텔신라 급등세는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들어 주춤했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오름세를 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부정적인 변수인 것은 맞지만 주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삼성전자의 업황이 좋고 펀더멘털이 견고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긴다고 해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자본확충 '덩치'보다 수익창출 '내실'에 집중"

CEO와 茶한잔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업계 최고 수준 IB 역량... 他증권사와 경쟁 자신

10년은 긴 시간이다. 매일 돈의 물결이 바뀌는 증권업계에서는 특히 그렇다. 증권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유상호(사진)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상징적인 이유다. 지난 2007년 취임한 유 사장은 평균 재임기간 3년 안팎인 증권업계에서 무려 10년간 한국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다.

10번째 임기의 마지막 한 달을 맞는 유 사장을 쫓는 시간 만났다.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장수의 비결'이다. "행복한 회사를 경영 모토로 삼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유 사장은 "출근할 때 설레고

퇴근할 때 마음이 가벼운 회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선순환'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지난 재임기간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물었다. 유 사장은 2007년 첫 취임 이후 한국투자증권에 기업금융(IB)과 자산관리(AM)를 결합한 'IB-AM' 수익구조 모델을 만든 일을 꼽았다. 유 사장은 "그동안 개인 고객 의존도가 높았던 증권업계의 수익구조에 일대 변화를 꾀한 것"이라며 "당시는 첫 시도

였지만 지금은 업계의 모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유 사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형 IB로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가 국내 자본시장의 초대형 IB 원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당분간 '덩치'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겼다"며 "주기적인 자본 확충보다는 신규사업 선점과 수익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초대형 IB 간 경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한국투자증권의 IB역량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올해는 한국 자본시장과 증권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고 수준인 IB 역량을 십



분 발휘해 운용 성과를 제고하고, '도전 DNA'를 무기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포부가 있는지 물었다. 유 사장은 임박한 시점을 감안해 10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질문한 것이었다. 이에 유 사장은 "특별히 개인적인 것보다는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한 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안목으로 장기적인 전략 하에 전 임직원의 의지와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
금감원, 7월8일까지 연장기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했던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을 7월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조기 대선 등 정치 상황에 따라 풍문 유포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되면서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 운영시한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주요 정치인과 관련된 80여 개 테마주 주가는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세와 크게 벗어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테마주의 추가 변동률은 32.3%로 시장평균(16.7%) 대비 2배에 달한다.

정다운 기자 gamia@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악마의 유혹을 물리쳐라"
설탕의 진실과 설탕 없이도 입맛 돋우는 레시피까지...
220원

설탕 디톡스 21일 | 다이어트 샌플리프 저음 | 20,000원 | 256쪽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다이어트와 성인병의 주범, 설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설탕 디톡스 21일

설탕 디톡스 21일이란?

"설탕 디톡스 21일 프로그램은 자연식품을 기본 토대로 삼아 설탕과 탄수화물을 향한 식욕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탄생했다. 3주 동안 양질의 단백질, 건강에 좋은 지방, 유익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평소 먹는 음식은 물론 식습관과 미각도 바뀌어서 다양한 음식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첨가당과 과도하게 단 음식을 먹지 않고 혀가 단맛을 인지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면, 전에는 달콤한 줄도 몰랐던 음식이 시간이 갈수록 달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책 뒤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든 음식도, 1일차에 먹을 때와 21일차에 먹을 때 맛이 큰 차이를 느낄 것이다!

전국서점에서 절찬판매 중

고즈원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서교동 481-5)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外人, 10대 상장사 배당금 3.7조 챙겼다

10대기업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 7.4조... 전년보다 1조 늘어
삼성전자 9000억 증가한 3조8500억... 외인 몫 1조9500억

국내 10대 상장사들이 올 3월 지급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배당금이 전년과 비교해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10대 상장사 배당금의 절반 이상인 3조 7637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시가 총액 기준으로 10위 내 상장사(공기업 및

우선주 제외)들이 결정한 2016회계연도 결산 현금배당 총액은 7조4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배당총액 6조3525억 원과 비교해 1조 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현금배당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9000억 원이 늘어난 3조 8503억 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가

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도 배당금을 700억 원을 늘린 4236억 원을 올 3월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금융사 중에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배당금을 확 늘렸다. 신한지주는 500억 원가량을 늘린 6875억 원으로 결정했다. KB금융도 1100억 원 이상을 늘린 4879억 원으로 통크게 솔 예정이다. 반면 POSCO는 4599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억 원가량이 줄었다. 현대차는 지난해와 같은 8108억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삼성전자 등 배당금을 늘

린 총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대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총액 중 외국인들이 가져갈 몫이 7조4000억 원 중 51%인 3조763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조1277억 원과 비교해 60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기업별 외국인 투자자 몫을 보면 삼성전자가 1조9544억 원, 신한지주 4662억 원, 현대차 3520억 원, POSCO 2428억 원, KB금융 3138억 원 등의 순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국내 10대 상장사 결산 배당금(3월 지급) 현황

	2016년		2017년	
	배당총액	외국인 배당금	배당총액	외국인 배당금
삼성전자	2조9198억 원	1조4415억 원	3조8503억 원	1조9544억 원
SK하이닉스	3530억 원	1665억 원	4236억 원	2173억 원
현대차	8108억 원	3560억 원	8108억 원	3520억 원
NAVER	321억 원	183억 원	325억 원	196억 원
현대모비스	3309억 원	1675억 원	3314억 원	1568억 원
POSCO	4799억 원	2268억 원	4599억 원	2428억 원
삼성물산	838억 원	82억 원	907억 원	78억 원
신한지주	6309억 원	4168억 원	6875억 원	4662억 원
삼성생명	3327억 원	597억 원	2154억 원	330억 원
KB금융	3786억 원	2664억 원	4979억 원	3138억 원
총계	6조3525억 원	3조1277억 원	7조4000억 원	3조7637억 원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에미리트 존 사나드 알 맥발리 회장(왼쪽)과 에이티젠 박상우 대표가 MOA 체결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이티젠

에이티젠, 에미리트 존과 MOA 투자금 유치 협력 중동사업 가속

에이티젠이 아랍에미리트의 유력 기관 에미리트 존(Emirates Zone)과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에이티젠은 지난달 27일 성남 본사에서 에미리트 존과 중동지역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에이티젠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중동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의각서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높은 관심을 보였던 다수의 중동 투자자들부터 자금 유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본격 이행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투자자금은 판매망 구축과 시설자금 등 성공적인 중동사업 진행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금은 전략적 펀드 성격으로 중동 주요국에서의 성공적인 NK뉴키트 사업 진행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관계사인 엔케이맥스의 NK 세포치료제 사업에 필요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구축 등에도 투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아이디, 화장품 ‘모메이’ 론칭 천연 성분 제품 2종 온라인 판매

이아이디가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모메이(momeii)’를 공식 론칭하고 다양한 마케팅과 함께 국내외 본격 판매에 나선다. 이아이디는 모메이의 화장품 2종의 완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정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크리스탈 버블 부스팅 마스크’, ‘크리스탈 볼륨 에센스’ 두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기존 온라인 화장품 5종으로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모메이는 천연 유래 성분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다. ‘크리스탈 볼륨 에센스’는 크리스탈 액정 안료 효능을 높여 피부 흡수율을 높이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개선시키는 기능성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또, ‘크리스탈 버블 부스팅 마스크’는 미세한 산소 거품을 통해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또한, 중국 화장품 유통 자회사와의 제휴계약 및 글로벌 역지구 체를 통한 해외시장 판매 등 해외시장 진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성시중 기자 ssj@

SGA솔루션즈, AI 보안시스템 4월께 출시

빅데이터 머신러닝 지속가능위협 방어·이상 징후 탐지

SGA솔루션즈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보안 시스템을 이르면 4월께 내놓을 전망이다. 2일 SGA솔루션즈는 관계자는 “다양한 보안 이벤트를 빅데이터에 저장하고 머신러닝(AI의 한 분야)을 통한 연관·상관분석을 통해 지능형지속가능위협(APT) 공격을 방어하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이상징후탐지솔루션’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SGA솔루션즈가 개발 중인 신제품은 회사측의 보안관제 기술에 수년간 쌓아온 서버보안 로그와 엔드포인트보안 로그 및 악성코드 분석을 통한 혁신적 융합보안 제품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통합보

안 역량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SGA솔루션즈는 지난해 서버보안 및 인증 기술을 활용해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를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했다. 자회사인 SGA 임베디드는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융합보안 시범사업 중 스마트홈과 가전 분야에 선정돼 적용되기도 했다. SGA임베디드는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보안솔루션을 공급과 함께 IoT기반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가속화될 임베디드시스템 산업 성장과 더불어 양사간 사업협력을 통해 IoT 보안사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우림 기자 hura@

이번에 출시될 제품으로 SGA솔루션즈는 국내외 AI관련 보안 분야에서 선제적 시장점유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AI는 바둑프로그램 ‘알파고’를 비롯해 세계 정보산업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이날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적 정보기술박람회인 모바일월드포그레스(MWC2017)에서 순정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순정에서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 후에도 인간 뇌의 뉴런 수는 변함이 없다”며 “인간 뇌의 발전은 2018년이 한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랜지스터의 갯수는 무한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30년 뒤에는 집(AI) 하나가 우리 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우림 기자 hura@

크루셜텍, MWC서 지문인식 솔루션 선포

디스플레이 일체형 솔루션 첫선 위조지문방지·홍채인식 등 전시

모바일 생체인증 솔루션 전문기업 크루셜텍이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인 MWC 2017(Mobile World Congress 2017)에 참가해 첨단 생체인식 기술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크루셜텍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MWC에 참가해 기술력을 과시해 왔다. BTP(모바일 지문인식 솔루션), OTP(모바일 광마우스) 등 대부분의 제품을 개발, 상용화한 크루셜텍은 매년 MWC에서 주목받아 왔다. 올해도 크루셜텍은 국내 중견기업 최대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 위조지문방지 솔루션 등 생체인식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 핵심 전시 제품 중 하나는 이번 MWC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디스플레이



크루셜텍은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인 MWC 2017(Mobile World Congress 2017)에 참가해 생체인식 기술을 선보였다. 사진은 크루셜텍 전시 부스 전경. 사진제공 크루셜텍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 DFS이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 손가락을 대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지문인식 장치로 투명한 지문센서, 터치·지문 동시 가능한 하이브리드 센서,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 전체를 크루셜텍이 자체 개발했다. 크루셜텍은 위조지문방지 솔루션도 공개했다. 지문인식과 생체 신호를 동시

에 센싱해 위조지문을 차단하는 솔루션으로 초산반비, 실리온 그라파이트, 등 대부분의 위조지문 해킹을 막아낸다. MWC에서는 심박 방식(HRM), 보디 임피던스 방식(BIA) 솔루션을 전시 중이다. 이밖에 신용카드에 탑재되는 초박형, 홍채인식 솔루션 등도 전시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아남전자, 하만 매출 비중 18%... 와이파이 스피커 상반기 개발

아남전자가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사에 ODM은 물론 OEM까지 하고 있으며 매출이 약 20%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성인식 기술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 내에 와이파이 스피커를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2일 아남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사에 제조자개발생산(ODM)은 물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까지 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에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아마존 알렉사 음성 서비스(Alexa Voice Service)를 지원할 수 있는 와이파이 스피커(Speaker)를 선행개발 완료 예정”이라며 “Far Field application 음성인식 기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아남전자는 이외에도 방송발전 설계기, 고음질 어쿠스틱(Acoustic) 핵심기술, 홈씨어터 플랫폼인 돌비 에트모스(Dolby Atmos Soundbar) 기술, HRA 고음질 와이파이 멀티룸 스피커(Multiroom Speaker) 기술 등 신규 기술 확보를 마쳤다. 설경진 기자 ski78@

음성인식, 와이파이 스피커는 최근 AV업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음성비서로 알려진 아마존의 알렉사 음성 서비스는 이미 단순 스피커 영역을 넘어 TV,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통신사 역시 스피커 기반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은 음성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설경진 기자 ski78@

두산중공업, BW 5000억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올 만기 4300억 사채 부담 덜듯

두산중공업 주가 추이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결정했다. BW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50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BW발행이 자금 시장 여건이 좋을 때 선제적으로 미래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조기에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발판 삼아 사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이번 BW발행을 통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사채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산중공업의 최근 재무제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사채는 4300억 원 수준이다. 만기별로 보면 당장 상반기까지 갚아야 하는 사채는 모두 2900억 원이다. 이후 7월과 11월에 각각 1000억 원과 400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만기연장이 수월한 은

행권 차입금과 달리 사채는 일시 상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BW 발행을 통해 향후 사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발행조건이 기존 사채보다 상당히 좋다는 점도 향후 재무구조 개선과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이 올해 11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사채에 대한 이자율은 3.9~4.4% 수준이다. 반면 이번 발행되는 사채의 이자율은 2% 수준으로 기존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두산중공업의 현재 분기별 보유현금이 4000억 원 수준으로 BW발행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경우 투자자금과 유동성 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BW발행은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바이오 플랫폼 사업 ‘코디엠’ 美 진출

LA법인 설립 마무리 단계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 추진



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약 400여 개의 해외 개발 유망 물질을 소개하는 등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회사 측은 주 부회장의 해외 네트워크가 본격적인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전략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디엠은 현재 다수의 미국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물질 스키투링 및 평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지사 설립을 통해 해당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오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어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이 미주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코디엠은 이달 초 사무실을 정식 오픈하고 본격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지사 설립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필요한 기초물질 발굴 및 기존에 투자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코디엠 관계자는 “이번에 설립한 LA 지사는 코디엠의 바이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코디엠이 바이오 플랫폼 사업 총괄 부회장으로 영입한 주성연(사진) 전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단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법인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디엠은 앞서 하버드 출신의 쉐한 피터 헤이트리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교수, 영국 기네스 가문 후손인 헨리 채넌 회장 등 바이오 플랫폼 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글로벌 전문인력들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또 주 부회장이 글로벌 C&D(Connection and Development)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대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총액 중 외국인들이 가져갈 몫이 7조4000억 원 중 51%인 3조763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조1277억 원과 비교해 6000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기업별 외국인 투자자 몫을 보면 삼성전자가 1조9544억 원, 신한지주 4662억 원, 현대차 3520억 원, POSCO 2428억 원, KB금융 3138억 원 등의 순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함께 축하할 고객이 있어서 더욱 감사한 70주년

70년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LG 70주년 감사 대축제

고객님들의 70년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혜택들을 만나보세요

행사기간: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

행사1 _ 창립 70주년 기념 7대 명품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공청기, PC 해당 모델 구매시 추가 혜택 제공 (각 1,000대 한정)

행사2 _ 창립 70주년 기념 스페셜 세트 혼수/이사, 건강/효도 세트 중 제품 3개 제품군 이상 구매시 특별 사은품 증정

행사3 _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을 찾아라!' 70주년 기념 엠블럼을 촬영하여 홈페이지 응모시 총 7,777명 대상 경품 증정

※ 본 행사는 행사 참여점과 행사 모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이벤트 페이지 (www.lge.co.kr)에서 확인하세요.